creative commons
COMMONS DEED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dCollection

문학석사 학위논문

한국어 사태 단위사와 동사의 공기 관계 연구

2023년 2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국어학 전공

이 민 영

한국어 사태 단위사와 동사의 공기 관계 연구

지도교수 박 진 호

이 논문을 문학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22년 10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국어학 전공

이 민 영

이민영의 문학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23년 1월

위 원 장 황 선 엽 (인)

부위원장 문 숙 영 (인)

위 원 박 진 호 (인)

국문초록

본 연구에서는 한국어의 사태 단위사를 정의하는 기준을 세우고, 사태 단위사 22개를 선정하여 그 용례를 통해 사태 단위사의 의미적 특징 및 사태 단위사와 공기하는 동사가 가지는 의미적 공통점을 포착하고자 하였다.

먼저 2장에서는 그간의 연구에서 혼동되었던 단위사 및 사태 단위사의 개념을 정합적인 기준을 통해 정의하였다. 그동안의 연구에서는 사태 단위사를 정의함에 의미적인 기준이나 분포적인 기준만을 적용하여 논의마다 사태 단위사의 정의가 달랐는데, 본고에서는 범주적·분포적·기능적 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사태 단위사를 정의하였다.

3장에서는 사태 단위사의 범용성을 측정하고, 사태 단위사와 공기하는 동사들 간의 의미적 공통점을 발견하였다. 전자를 위해 사태 단위사와 공기하는 동사의 분포를 구하고, 이를 말뭉치 전체의 동사 분포와 비교하는 상대 엔트로피 값을 구하였다. 그 결과 말뭉치 전체와 가장 유사한 동사 분포를 가지는 사태 단위사는 '번'이며, 가장 이질적인 분포를 가지는 사태 단위사는 '바늘'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후자를 위해 각 사태 단위사별로 공기하는 빈도가 높은 동사들을 확인하고, 이들의 의미적 공통점을 분석하였다.

4장에서는 사태 단위사가 특정 조건 하에서 동사구의 상황 유형을 바꾸는 힘을 가질 수 있음을 밝혔다. 먼저, 수량 표현에 사태 단위사 '번'이 사용되면 동사구에 [+종결성]의 상적 자질 값이 부여됨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사태 단위사 '번' 대신 '걸음, 발, 발자국, 발짝'이 사용되면 [+순간성]의 상적 자

질 값이 부여되어 상황 유형이 완성에서 달성으로 바뀔 수 있음을 확인했다. 또 사태 단위사 '번' 대신 '순'이 사용되면 [-순간성]의 상적 자질 값이 부여되어 상황 유형이 달성에서 완성으로 바뀔 수 있음을 확인했다.

본 연구는 한국어의 사태 단위사를 정의하는 기준을 세워 앞으로 사태 단위사를 논의하기 위한 기틀을 마련하였으며, 특정 사태 단위사를 사용하는 의미적 기능을 확인하였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주요어 : 사태 단위사, 동사, 공기 관계, 상황 유형
학 번 : 2021-21056

목 차

1. 서론 ····· 1
1.1. 연구 목적 ····· 1
1.2. 연구 대상 및 방법 ····· 2
1.3. 논의의 구성 ····· 7

2. 이론적 전제 ····· 9
2.1. 선행 연구 검토 ····· 9
2.1.1. ‘분류사’ 명칭에 대한 재고 ····· 9
2.1.2. ‘단위사’ 명칭의 타당성 ····· 14
2.1.3. 사태 단위사에 관한 연구 ····· 17
2.2. 단위사의 정의적 조건 ····· 20
2.3. 사태 단위사의 정의적 조건 ····· 24
2.4. 사태 단위사의 범용성과 중립성 ····· 32

3. 사태 단위사와 동사의 공기 관계 ····· 34
3.1. 말뭉치 개요 및 용례 추출 ····· 34
3.2. 사태 단위사와 동사의 공기 양상 ····· 35
3.2.1. 계량적 검토 ····· 35
3.2.2. 사태 단위사와 공기하는 동사 ····· 39
3.3. 사태 단위사의 의미적 동질성과 이질성 ····· 71

4. 상황 유형과 사태 단위사 ····· 74
4.1. 상황 유형 ····· 74
4.2. 상황 유형을 바꾸는 사태 단위사 ····· 80

4.2.1. [+순간성] 부여 ····· 84
4.2.2. [−순간성] 부여 ····· 85

5. 결론 ····· 86

참고문헌 ····· 88
Abstract ····· 95

표 목 차

[표 1-1] 한국어의 사태 단위사 22개 ····· 3
[표 2-1] 선행 연구의 사태 단위사 ····· 19
[표 2-2] '바탕'과 공기하는 고빈도 동사 ····· 31
[표 3-1] 각 사태 단위사별 용례의 개수 ····· 35
[표 3-2] 말뭉치에 나타나는 상위 20개 동사 ····· 37
[표 3-3] 각 사태 단위사별 공기 동사의 상대 엔트로피 ·· 38
[표 3-4] '번'과 공기하는 고빈도 동사 ····· 39
[표 3-5] '차례'와 공기하는 고빈도 동사 ····· 41
[표 3-6] '통화'와 공기하는 고빈도 동사 ····· 42
[표 3-7] '판'과 공기하는 고빈도 동사 ····· 44
[표 3-8] '수'와 공기하는 고빈도 동사 ····· 45
[표 3-9] '방'과 공기하는 고빈도 동사 ····· 47
[표 3-10] '끼'와 공기하는 고빈도 동사 ····· 48
[표 3-11] '땀'과 공기하는 고빈도 동사 ····· 49
[표 3-12] '탕'과 공기하는 고빈도 동사 ····· 51
[표 3-13] '끼니'와 공기하는 고빈도 동사 ····· 52
[표 3-14] '발'과 공기하는 고빈도 동사 ····· 54
[표 3-15] '걸음'과 공기하는 고빈도 동사 ····· 55
[표 3-16] '발짝'과 공기하는 고빈도 동사 ····· 57
[표 3-17] '발자국'과 공기하는 고빈도 동사 ····· 59
[표 3-18] '바퀴'와 공기하는 고빈도 동사 ····· 61
[표 3-19] '순배'와 공기하는 고빈도 동사 ····· 62
[표 3-20] '홰'와 공기하는 동사 ····· 64
[표 3-21] '코'와 공기하는 동사 ····· 65

[표 3-22] ‘배’와 공기하는 동사 ····· 66
[표 3-23] ‘순’과 공기하는 동사 ····· 68
[표 3-24] ‘획’과 공기하는 고빈도 동사 ····· 68
[표 3-25] ‘바늘’과 공기하는 동사 ····· 69
[표 3-26] ‘끼’ 및 ‘끼니’와 공기하는 고빈도 동사 ····· 72
[표 4-1] 상황 유형의 종류 ····· 75

그 림 목 차

[그림 3-1] 사태 단위사 ‘바늘’의 용례 ····· 34

1. 서론

1.1. 연구 목적

본 연구는 한국어의 사태 단위사를 정의하고, 각 사태 단위사와 긴밀한 공기 관계를 가지는 동사를 확인하며 사태 단위사가 동사구의 상황 유형을 바꾸는 경우를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한국어 말뭉치 자료에서 사태 단위사의 용례를 검토하고, 사태 단위사와 공기하는 여러 동사의 관계를 계량적으로 분석한다. 그리고 사태 단위사 '번'이 사용될 때 각 동사구의 상황 유형과, 특정 사태 단위사가 사용될 때의 상황 유형을 분류하여 사태 단위사 사용에 따른 상황 유형의 차이를 확인한다.

한국어의 단위사는 물질의 개수 또는 양을 세는 물질 단위사와, 사태의 횟수를 세는 사태 단위사로 구분할 수 있다. 전자의 예로는 '사과 한 개'의 '개', '물 한 컵'의 '컵'이 있고, 후자의 예로는 '운동장 세 바퀴를 돌았다'의 '바퀴', '열두 바늘을 꿰매다'의 '바늘'이 있다. 그런데 기존의 단위사 연구에서는 사태 단위사를 물질 단위사와 구분하지 않거나, 물질 단위사의 하위 부류로 인식한 경향이 짙다. 하지만 사태 단위사는 핵 명사의 개수나 양이 아니라 사태의 횟수를 세기 때문에 이러한 구분에는 재고가 필요하다.

중국어에서는 한국어의 단위사에 해당하는 양사를 명량사와 동량사로 나눈다. 명량사는 사물의 계량 단위를 나타내고 동량사는 동작의 계량 단위를 나타내는 것으로 정의된다. 연구에 따라 시간의 계량 단위를 나타내는 시량사(时量词)나, 사물의 계량 단위를 나타내지만 통사적 기능의 차이를 보이는 자주양사(自主量词)를 명량사 또는 동량사의 하위 부류로 포함하거나 별개의 부류로 상정하기도 한다(黄伯荣·廖序东 2011: 16-18; 沈阳·郭锐 2015: 214-216).

중국어학계에서 주목하는 명량사와 동량사의 차이는 이들이 포함된

수량사구가 가지는 통사적 기능에 있다. 명량사가 포함된 수량사구는 주로 관형어로 쓰이는 반면, 동량사가 포함된 수량사구는 부사어로 기능하거나 동사나 형용사 뒤에서 준빈어(准宾语)[1]로 쓰이며 관형어로 쓰이지는 않는다(沈阳·郭锐 2015: 215).

중국어의 동량사 전반을 다루거나 개별 동량사에 집중한 연구는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예컨대 동량사를 분류하는 방식으로는, 전통적으로 동량사의 기원에 따라 본래 동량사로 쓰여 온 전용동량사(专用动量词)와 다른 품사에 기원을 두는 차용동량사(借用动量词)로 나누는 정적인 방식이 이어졌다. 그런데 최근에는 동량사와 술어의 결합 관계 등 동적인 요인에 비추어 동량사를 분류하는 방식이 부상하고 있다(邵敬敏 1996). 또 동량사가 가지는 의미적 기능 및 수량사구의 분포적 기능을 바탕으로 동량사를 분류하는 방식이 제안되기도 했다(刘街生 2003). 한편 국내에서는 동량사의 내적 시폭에서 나타나는 과정성의 정도를 기준으로 비연속성이 부각되는 부류와 과정성이 부각되는 부류, 그리고 비연속성과 과정성이 모두 부각되는 부류로 나눈 연구가 있었다(김영민 2008).

중국어의 명량사에 해당하는 한국어의 물질 단위사에 관한 연구는 다수 이루어졌지만, 중국어의 동량사에 해당하는 한국어의 사태 단위사에 관한 연구는 아직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본 연구는 사태 단위사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을 시작으로, 사태 단위사가 동사구의 다른 요소와 이루는 관계를 이해하는 데에 목적을 둔다.

1.2. 연구 대상 및 방법

본 연구는 한국어에서 사태의 횟수를 세는 단위사 22개를 기초적인 연구 대상으로 삼는다. 사태 단위사 22개의 목록은 다음과 같다.[2] 이

1) 중국어의 '준빈어'는 전형적이지 않은 빈어를 의미한다. '빈어'는 한국어의 '목적어'에 상응하는데, 준빈어는 일반적인 빈어와 달리 실재적인 대상을 가리키지 않고 빈어에 비해 술어와의 결합이 자유롭지 않다.

2) 어깨번호는 《표준국어대사전》을 따랐다.

들을 사태 단위사로 선정한 기준은 2.3절에서 상세히 다룬다.

(1) 걸음, 끼1, 끼니, 땀2, 바늘, 바퀴1, 발1, 발자국, 발짝1, 방10(放), 배1, 번4(番), 수3(手), 순3(巡), 순배(巡杯), 차례2(次例), 코2, 탕1, 통화4(通話), 판1, 홰1, 획2(劃)

《표준국어대사전》에서 제시하는 이들 사태 단위사의 뜻풀이와 예문은 다음 표 1-1과 같다.

[표 1-1] 사태 단위사 22개[3)]

단위사	《표준국어대사전》의 뜻풀이 및 예문
걸음	「명사」 6. ((수량을 나타내는 말 뒤에 쓰여)) 두 발을 번갈아 옮겨 놓는 횟수를 세는 단위. 예 한 걸음 예 몇 걸음 걷다가 앉다. 예 그는 두어 걸음 앞서 걸었다.
끼1	「명사」 2. ((수량을 나타내는 말 뒤에 쓰여)) 밥을 먹는 횟수를 세는 단위. ≒끼니. 예 한 끼. 예 난 아침은 거르고 하루에 두 끼만 먹어.
끼니	「명사」 2. ((수량을 나타내는 말 뒤에 쓰여)) 밥을 먹는 횟수를 세는 단위. =끼. 예 쌀이 한두 끼니 먹을 정도밖에 안 남았다. 예 하루 종일 자시는 밥은 세 끼니를 합쳐서 오 홉이 아니면 육 홉뿐이었다. ≪박종화, 임진왜란≫
땀2	「명사」

3) 대체로 《표준국어대사전》 안에서 의존명사이거나, '수량을 나타내는 말 뒤에' 쓰이는 명사로 기술되어 있어 그에 해당하는 뜻풀이와 예문을 실었으나, '바늘'은 단위사로서의 뜻이 기술되어 있지 않아 자립명사의 뜻풀이와 예문을 실었다.

	2. ((수량을 나타내는 말 뒤에 쓰여)) 실을 꿴 바늘로 한 번 뜬 자국을 세는 단위. 예 바느질을 한 땀 한 땀 정성 들여 하다. 예 몇 땀만 더 뜨면 솔기가 마무리된다.
바늘	「명사」 1. 옷 따위를 짓거나 꿰매는 데 쓰는, 가늘고 끝이 뾰족한 쇠로 된 물건. 한쪽 끝에 있는 작은 구멍에 실을 꿰어서 쓴다. ≒침자. 예 바늘 한 쌈. 예 그녀는 바늘에 실을 꿰어 한 땀 한 땀씩 수를 놓았다. 예 바느질을 하다 손끝을 바늘에 찔렸다.
바퀴1	[II] 「의존명사」 1. 어떤 둘레를 빙 돌아서 제자리까지 돌아오는 횟수를 세는 단위. 예 체육 시간에 운동장을 세 바퀴 돌았다. 예 어머니와 시장을 한 바퀴 도는 동안 과일집을 여러 군데 발견했다.
발1	「명사」 6. ((수량을 나타내는 말 뒤에 쓰여)) 걸음을 세는 단위. 예 한 발. 예 두 발. 예 한 발 뒤로 물러서다.
발자국	「명사」 2. ((수량을 나타내는 말 뒤에 쓰여)) 발을 한 번 떼어 놓는 걸음을 세는 단위. 예 몇 발자국 뒤로 물러서다. 예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다.
발짝1	「의존명사」 발을 한 번 떼어 놓는 걸음을 세는 단위. 예 집이 한 발짝 한 발짝 가까워질수록 그의 마음은 불안해졌다. 예 대여섯 발짝 옮기다 말고 그는 갑자기 뒤돌아섰다.≪윤흥길, 완장≫ 예 웅보는 한 발짝도 움직일 수가 없었다.≪문순태, 타오르는

	강≫
방10 (放)	「의존명사」 1. 총포를 쏘거나 남포 따위를 터뜨리는 횟수를 세는 단위. 예 총을 네댓 방 쏘았다. 예 남포가 몇 방 터졌다. 예 공포를 한 방 놓았다. 2. 주먹, 방망이 따위로 치는 횟수를 세는 단위. 예 주먹 한 방에 나가떨어지다. 예 주먹 몇 방으로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예 홈런을 세 방이나 날렸다. 3. 사진을 찍는 횟수나 필름의 장수(張數)를 세는 단위. 예 스물네 방을 찍을 수 있는 필름. 예 한곳에서 여러 방 찍지 마라. 4. 방귀를 뀌는 횟수를 세는 단위. 예 참았던 방귀를 몇 방 뀌었더니 시원하다.
배1	「명사」 6. ((수량을 나타내는 말 뒤에 쓰여)) 짐승이 새끼를 낳거나 알을 까는 횟수를 세는 단위. 예 그 돼지는 1년에 두 배나 새끼를 낳았는데, 한 배마다 여러 마리의 새끼를 낳았다.
번4(番)	[II] 「의존명사」 2. 일의 횟수를 세는 단위. 예 여러 번. 예 누구나 한 번은 겪는 일. 예 몇 번을 그 앞을 왔다 갔다 하여 보았지만, 들어갈 기회는 얻을 수가 없었다.≪김동인, 젊은 그들≫
수3(手)	[II] 「의존명사」 바둑이나 장기 따위에서, 한 번씩 번갈아 두는 횟수를 세는 단위. 예 몇 수 앞을 보고 두다. 예 이 한 수가 최대의 패착이다. 예 한 수만 물리자.
순3(巡)	「명사」 3. ((수량을 나타내는 말 뒤에 쓰여)) 활을 쏠 때에 각 사람

	이 화살을 다섯 대까지 쏘는 한 바퀴. 예 첫 번째 순이 끝나다. 예 두 순을 쏘다.
순배 (巡杯)	「명사」 2. ((수량을 나타내는 말 뒤에 쓰여)) '술자리에서 술잔을 차례로 돌림. 또는 그 술잔'의 분량을 세는 단위. 예 술잔이 두어 순배 오갔다.≪송기숙, 녹두 장군≫ 예 술이 서너 순배 돌고 나자 웬만큼들 취하는 모양이었다.≪오유권, 대지의 학대≫ 예 술이 몇 순배 돌아가지도 않아서, 얼굴이 홍당무가 되었지만, 그는 사양하는 법 없이 주는 대로 받아 마셨다.≪조해일, 멘드롱 따또≫
차례2 (次例)	「명사」 3. ((수량을 나타내는 말 뒤에 쓰여)) 일이 일어나는 횟수를 세는 단위. 예 그는 같은 말을 여러 차례 반복했다. 예 소나기가 몇 차례 쏟아졌다. 예 할아버지께서는 암으로 수술을 다섯 차례나 받으셨다.
코2	「명사」 2. ((수량을 나타내는 말 뒤에 쓰여)) 뜨개질할 때 눈마다 생겨나는 매듭을 세는 단위. 예 한 코 한 코 뜰 때마다 아내는 자신이 뜬 목도리를 두른 남편의 모습을 그리면서 행복해했다.
탕1	「의존명사」 1. 무엇을 실어 나르거나 일정한 곳까지 다녀오는 횟수를 세는 단위. 예 원주에서 서울까지 하루 두 탕 왕복했다. 예 쓰레기를 세 탕이나 실어 날랐다. 예 일이 많을 때에는 화물 트럭으로 하루에 두 탕이나 퍼 옮겨야 했다. 2. 어떤 일을 하는 횟수를 나타내는 단위. 예 아르바이트를 하루에 두 탕이나 뛰다.
통화4 (通話)	「명사」 2. ((수량을 나타내는 말 뒤에 쓰여)) 통화한 횟수를 세는

	말. ㉠ 전화 한 통화만 쓸 수 있을까요? ㉡ 전화 한 통화면 될 일을 괜히 어렵게 생각하였다.
판1	[II] 「의존명사」 2. 승부를 겨루는 일을 세는 단위. ㉠ 씨름 한 판. ㉡ 마지막 판. ㉢ 바둑 한 판 둘래?
홰1	[II] 「의존명사」 새벽에 닭이 올라앉은 나무 막대를 치면서 우는 차례를 세는 단위. ㉠ 닭이 세 홰 울다. ㉡ 삼경이 지나 닭이 한 홰 울 때쯤에, 그는 잠이 깨었다.
획2(劃)	「명사」 2. ((수량을 나타내는 말 뒤에 쓰여)) 글씨나 그림에서, 붓 따위를 한 번 그은 줄이나 점을 세는 단위. ㉠ 한 획 두 획 정성껏 쓰다.

1.3. 논의의 구성

이후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구성으로 전개된다. 2장에서는 사태 단위사를 살핀 선행 연구를 검토하고, 단위사 및 사태 단위사의 개념을 정립한다. 기존의 연구에서는 '단위사' 개념을 가리키는 용어조차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으므로, 여러 연구에서 제안한 용어를 소개하며 해당 용어의 주안점과 한계를 짚는다. 그리고 단위사 및 단위사의 하위 부류인 물질·사태 단위사의 정의적 조건을 설정한다. 3장에서는 앞서 설정한 사태 단위사의 정의적 조건을 통해 추린 사태 단위사 22개와 공기하는 동사를, 말뭉치 전체에 등장하는 동사와 비교하여 원 말뭉치 자료와 유사한 동사 분포를 가지는 단위사를 파악한다. 그리고 각 사태 단위사의 용례를 분석하고 공기하는 동사의 의미적 특징을 정리한다. 4장

에서는 일부 사태 단위사의 사용이 상황 유형을 변경하는 방식에 주목하여 사태 단위사의 의미적 기능을 설명한다. 5장에서는 연구를 요약하고 한계를 짚으며 후속 논의를 제안한다.

2. 이론적 전제

2.1. 선행 연구 검토

2.1.1. ‘분류사’ 명칭에 대한 재고

본 연구에서 ‘단위사’ 및 ‘사태 단위사’로 지칭하는 개념에 대해 일찍이 많은 연구에서 관심을 가지고 다루어 왔다. 단연코 사태 단위사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지기에 앞서, 단위사에 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졌다. 따라서 본 연구의 주축이 되는 사태 단위사에 대해 알아보기 전에 먼저 단위사의 명칭을 둘러싼 논의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단위사(unitizer)’는 국어학계에서 그동안 ‘양사’, ‘분류사’, ‘단위어’ 등으로도 불리며 논의되었다. 단위사를 조명한 초기의 논의에서는 단위사를 ‘counting units’(Ramstedt 1939), ‘셈낱덩이 안옹근이름씨’(최현배 1937/1975), ‘수량사(數量詞)’(이익섭 1973), ‘양사(量詞)’(성광수 1975) 등으로 불렀다. 최현배(1937/1975: 219-223)에서는 안옹근이름씨(불완전명사)를 어찌씨 같은 안옹근이름씨(부사성 불완전명사), 여늬 안옹근이름씨(보통 불완전명사), 셈낱덩이 안옹근이름씨(수단위 불완전명사)로 구분하였다. 이때 셈낱덩이 안옹근이름씨는 반드시 셈을 나타내는 관형사 뒤에 쓰여 그 셈의 단위를 나타낸다고 설명했다.

이익섭(1973)에서는 수량사구(數量詞句)가 일반적인 명사구와는 통사적으로 다르게 작용함을 포착하고, 수량사구에서 수사(또는 수 관형사)와 수량사 조합이 선행하는 명사를 반복하고 구체화하는 기능을 한다고 설명하였다. 이 과정에서 본고의 단위사에 해당하는 개념을 지칭하기 위해 ‘수량사’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이 특징적이다. 다만 이후의 논의에서 ‘수량사’는 대체로 ‘사과 하나’의 수사 ‘하나’, ‘사과 한 알’의 수 관형사 ‘한’을 가리키는 데에 쓰이게 되었다.

성광수(1975: 199-200)에서는 '불완전명사'라고 부른 의존명사 중, 단위를 세는 단위성 의존명사를 '양사'로 지칭하였다. 양사는 문장 내에서 자립할 수 없어 수사 또는 수 관형사와 함께 나타나는데, 성광수(1975)에서는 이익섭(1973)과 다르게 이것을 수량사(數量詞)로 부르고, 수량사가 명사의 하위 분류에서 나타난다고 보았다. 그리고 수량사는 다시 수사와 양사로 하위 분류할 수 있으므로 수사와 양사는 명사를 세분할 때 나타나는 범주로 보았다.

1980년대 이후로 본 연구의 '단위사'에 해당하는 개념을 '분류사(classifier)'로 지칭하는 연구가 다수 등장한다. 대표적인 연구로는 채완(1982, 1983, 1990), 곽추문(1996), 우형식(2001), 진려봉(2012) 등이 있다.

채완(1982) 및 채완(1983, 1990)에서는 해당 개념을 각각 'Cl'과 '분류사'로 칭하고 있다. 채완(1982, 1983)은 분류사 그 자체보다는 분류사가 포함되는 한국어 수량사구의 어순과 용법에 초점을 두고 연구가 전개되었다. 한편 채완(1990)에서는 앞선 연구에 비해 분류사에 더 집중하여, 분류사의 기능·의미·유형을 살폈다. 특히 채완(1990)에서는 '행위(action) 또는 사건(event) 명사와 결합되는 분류사'가 존재한다고 보아, 본고의 연구 대상인 사태 단위사의 존재를 인지하고, 여러 단위사 중 '회(回)'와 '번(番)'을 가장 중립적인 사태 분류사로 보았다. 그리고 원칙적으로 분류사의 기능이 '실체(entity) 명사의 복수화에 관여하는 것'이므로 '행위 또는 사건 명사와 결합되는 분류사'는 그 기능에서 조금 거리가 있음을 인정했다. 그러나 이들 또한 '수량화'와 '특질화' 기능을 맡는다는 점에서 기능적으로 크게 다르지는 않으므로 부류분류사(본고의 '물질 단위사')의 한 유형으로 상정하고, 물질의 개수나 양을 세는 단위사와 사태의 횟수를 세는 단위사를 구분하는 데까지 이르지는 않았다.

곽추문(1996)에서는 중국어의 '동량사'와 대등하게 볼 수 있는 '행위나 사건의 횟수를 세는 분류사', 즉 '동작분류사'를 부류분류사 및 도량분류사와 구분하였다. 그리고 동작분류사를 다시 '단일성 동작분류사'와 '집체성 동작분류사'로 나누었다. 단일성 동작분류사는 '동작의 횟수나

수량을 나타내는' 분류사로 정의하여 '끼(끼니), 땀, 모금, 바퀴, 발(發), 방(放), 번(番), 배, 사리, 입, 턱, 판, 홰'를 제시하고, 집체성 동작분류사는 '일을 한 차례 끝내는 동안에 일어난 동작의 수량을 세는' 분류사로 정의하여 '차례'와 '바탕'을 제시했다(곽추문 1996: 78-84).

다만 동작분류사를 이러한 기준으로 나누는 것은 언어 현실을 정확히 반영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곽추문(1996: 83-84)에서 제시한 집체성 동작분류사 중 '차례'는 단일성 동작분류사와 집체성 동작분류사의 역할을 겸할 수 있다고 보아 결과적으로 온전한 집체성 동작분류사로는 '바탕' 하나만을 제시하였다.

(2) ㄱ. 씨름을 몇 {바탕/번/판} 했으나 모두 지고 말았다.
ㄴ. 장기를 한 두 {바탕/번/판} 두다가 그만 싸움이 벌어졌다.
(곽추문 1996: 84에서 인용)

(2)의 두 문장은 곽추문(1996)에서 제시한 '바탕'의 용례다. 여기에서 사용된 '바탕'은 모두 단위사 '번'이나 '판'으로 대체되어도 맥락상 자연스럽다. 다만 (2ㄱ)에서는 '바탕'을 '번, 판' 중 어느 것으로 대체하여도 의미가 달라지지 않는데, (2ㄴ)에서는 장기를 '두 바탕' 두는 것, '두 번' 두는 것, '두 판' 두는 것의 의미하는 바가 다르다. '바탕'과 '판'은 장기알을 처음 움직일 때부터 그 시합이 끝날 때까지의 횟수를 세는 반면, '번'은 시합의 횟수를 세는 것으로도, 시합의 시작과 끝에 관계 없이 장기알을 두는 횟수를 세는 것으로도 느껴진다. 그렇다면 '번'은 '차례'와 마찬가지로 단일성 동작분류사와 집체성 동작분류사를 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겠으나, 곽추문(1996: 81-82)에서 이미 '번'은 고대 중국어 '番'이 가지던 단일성 동작분류사의 의미를 유지하는 것으로 확인한 바 있다.

'번'을 비롯한 단위사가 이질적인 의미를 가지는 이유는 그것이 횟수를 세는 사태에 있다. 사태 단위사는 곽추문(1996)에서 말하는 단일적인 의미를 가질 수도 있고, 집체적인 의미를 가질 수도 있으며, 둘 다 가질 수도 있다. 그런데 이러한 의미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은 단위사

가 아니라 단위사와 함께 쓰이는 동사다. 즉 단위사의 의미는 그것이 횟수를 세는 사태가 결정하는 것이다.

(3) ㄱ. 바둑을 한 번 두었다.
ㄴ. 주사를 한 번 놓았다.

(3)의 각 문장에서 단위사 '번'은 다른 의미로 사용되었다. (3ㄱ)의 '번'은 바둑 시합이 시작하고서부터 끝나기까지의 횟수를 세는 단위사로 쓰였으며, 바둑돌을 바둑판에 두는 행위의 횟수와는 무관하다. 즉 이때의 '번'은 곽추문(1996)의 집체성 동작분류사와 같은 쓰임을 가진다. 한편 (3ㄴ)의 '번'은 주사를 놓는 단일한 행위의 횟수를 세는 단위사다. 이때의 '번'은 단위성 동작분류사와 같은 쓰임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3ㄱ)의 '번'에 집체적인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단위사 '번' 자체가 아니라 '바둑을 두는' 사태며, (3ㄴ)의 '번'에 단일적인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주사를 놓는' 사태다.

이와 같이, 단위사의 단일성 또는 집체성을 결정하는 것은 단위사가 아니라 사태다. 따라서 어떤 단위사를 단일한 사태의 횟수를 세는 단위사, 또는 일정한 기간 동안에 일어난 사태의 횟수를 세는 단위사로 한정지어 분류하는 것은 단위사의 언어적 성격을 파악하는 데에 유용하다고 보기 어렵다.

Lyons(1977)에서는 유형론적 관점에서 분류사 언어와 비(非)분류사 언어의 차이에 주목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영어를 비롯한 비분류사 언어와 차이를 보이는 분류사 언어의 특징으로, 수(number)가 문법 범주로 기능하지 않는다는 점을 짚었다. 그리고 분류사 언어가 가질 수 있는 분류사를 부류 분류사(sortal classifier)와 도량 분류사(mensural classifier)로 하위 분류하였다. 다만 이 분류에 사태의 횟수를 세는 분류사는 포함되지 않았다는 한계가 있다.

그런데 위에서 살펴본 여러 연구에서 사용된 '분류사' 개념은 Allan(1977), Aikhenvald(2000) 등의 'classifier' 개념과 구분될 필요가 있다. Allan(1977)에서는 '명사를 분류하는 언어적 장치'를 뜻하는

‘classifier’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데, 이 개념이 한국어학계에서는 ‘분류사’로 번역되면서 수의 단위를 표시하는 분류사와 개념적으로 혼동될 우려가 있다. 구체적으로 두 연구의 classifier를 살펴보면, Allan(1977)에서 classifier는 특정 조건 하에 형태소로서 표면 구조에 나타나고, 명사 지시 대상인 (혹은 그러할 수 있는) 개체에 대해 두드러지게 인지되거나 함축하는 특성을 지시하는 의미를 가진다는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그리고 범언어적으로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는 classifier를 가지는 분류사 언어(classifier language)를 수 분류사 언어(numeral classifier language), 일치적 분류사 언어(concordial classifier language), 술어 분류사 언어(predicate classifier language), 처소-내적 분류사 언어(intra-locative classifier language)의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본고에서 주목하는 한국어의 단위사는 Allan(1977)의 수 분류사(numeral classifier)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더해 Allan(1977: 288)에서는 ‘분류사는 양화사(quantifier), 처소 표현(locative), 지시사(demonstrative), 술어(predicate)와 연쇄되어 그것이 분류하는 명사가 개입할 수 없도록 연쇄를 형성한다’는 보편 원칙이 있음을 제시하였는데, 이는 한국어의 단위사에 대해서도 적용되는 원칙이다. 한국어의 수량 표현은 ‘*한 개 마리’와 같은 어순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이다.[4)]

한편 Aikhenvald(2000)에서는 다양한 명사 범주화 기제를 광범위하게 가리키는 데에 classifier를 사용하며, 다음과 같이 여섯 가지로 세분하였다.

(4) ㄱ. 명사 분류사(noun classifier)
ㄴ. 수 분류사(numeral classifier)
ㄷ. 소유 분류사(possessive classifier)
ㄹ. 동사 분류사(verbal classifier)
ㅁ. 처소 분류사(locative classifier)
ㅂ. 화시 분류사(deictic classifier)

4) 이상 Allan(1977)에 사용된 술어의 번역은 우형식(2001)을 따랐다.

위의 여섯 가지 분류사 중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단위사는 (4ㄴ) 수 분류사에 해당한다. Lyons(1977)에서 분류사를 부류 분류사와 도량 분류사로 자세히 구분하였던 것처럼 Aikhenvald(2000)에서도 수 분류사를 다시 부류 분류사와 도량 분류사로 나누고 있다. 부류 분류사는 주로 유정성, 인간성, 또는 성(性)에 의해 선택되고, 사회적 지위, 물리적 속성, 기능적 속성, 배열/양에 의해 선택되기도 한다. 도량 분류사는 위의 선택 조건들을 조합하여 선택된다. 다만 이 연구에서도 사태의 횟수를 세는 분류사를 집중적으로 다루지는 않았다.[5)]

진려봉(2012)에서는 한국어학계에서 '분류사'라는 개념이 언어유형론적 '수 분류사'와 동일한 개념으로 사용되어 온 현실을 지적하고, 한국어 분류사에는 수 분류사 외에 명사 분류사도 있을 수 있음을 주장하였다. 이 연구에서 유형론적 관점에 입각해 연구된 한국어의 '분류사'는 Allan(1977)과 Aikhenvald(2000)에서 지목한 개념으로서의 '분류사'에 해당한다. 특히 진려봉(2012: 49-52)에서는 행위·사건의 횟수를 세는 성분이 존재한다고 보았는데, 그 가운데 사건명사와 공기하거나 사건명사를 상정할 수 있는 항목은 단위명사이자 수 분류사인 [사건성] 수 분류사로, 그렇지 않은 항목은 수 분류사가 아닌 일반적인 단위명사로 구분하였다.

선행 연구를 검토함으로써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언어유형론 논의에서 사용되는 'classifier'가 가리키는 개념과 국어학계에서 특징적으로 사용되는 '분류사'가 가리키는 개념에는 차이가 있다는 점이다. 두 개념 사이의 관계를 따지면 후자가 전자의 하위 분류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2.1.2. '단위사' 명칭의 타당성

진려봉(2012)은 한국어 수 분류사의 기본적인 기능으로 '범주화 기

5) 이상 Aikhenvald(2000)에 사용된 술어의 번역은 박진호(2011ㄴ)을 따랐다.

능’과 ‘단위화 기능’을 꼽았다. 특히, 진려봉(2012: 39)에서는 범주화 기능이 없다면 수 분류사 범주에 속할 수 없다고 보았다. 이러한 이유로, 언어유형론적 관점에서 사용되는 ‘수 분류사’라는 명칭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은 듯하다. 그러나 이 성분이 가지는 일차적 기능은 단위화이므로 이를 고려해 ‘단위사’로 부르는 것이 합당하다.

범주화 기능이 없는 단위사는 존재하지 않으므로, 단위사가 범주화 기능을 가진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 물질 단위사 중 가장 범용적으로, 두루 쓰인다고 생각되는 ‘개(個)’는 핵 명사를 범주화하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다음의 예문을 보자.

(5) ㄱ. 사탕 한 개가 있다.
ㄴ. *고양이 한 개가 있다.
ㄷ. *사람 한 개가 있다.

위 예문을 살피면, 단위사 ‘개’는 (5ㄱ)처럼 [−유정]의 사물을 셀 때에만 사용할 수 있고 [+유정]인 동물, 그 중에서도 [+인간]인 사람에게는 사용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다. 즉 단위사 ‘개’는 흔히 가장 범용적인 물질 단위사로 생각되지만, 그조차도 무정 명사의 수효를 센다는 제약이 있어 자연스럽게 핵 명사를 [−유정]으로 범주화하는 기능을 취하게 된다.

그러나 범주화 기능은 단위사의 부차적 기능일 뿐이다. 그 근거로, 다른 기능 없이 오로지 범주화만을 위해 사용되는 단위사는 없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만일 단위사의 기본 기능이 범주화라면, 수를 표시하지 않을 때에도 명사의 범주화를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 그런데 한국어에서 ‘*개 마리’와 같은 표현은 허용되지 않는다.[6] 다시 말해, 단위사가 수 표시의 목적 없이 범주화 기능만을 수행하기 위해 사용되지는 않는

6) ‘술잔이나 마시자’의 ‘술잔’, ‘돈냥이나 벌었다’의 ‘돈냥’처럼 명사와 단위사가 수사의 개입 없이 직접 결합하여 이룬 합성어가 있다. 그러나 이는 공시적으로는 생산적인 용법이 아니며 일부 명사와 단위사에 한정하여 나타난다는 점에서 단위사의 일반적인 용법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단위의 의미를 가지는 명사가 단어 합성 과정에서 담당하는 역할에 대해서는 후속 연구를 기약한다.

다. 따라서 단위사의 일차적 목적은 어떤 것의 수를 표시할 때 셈을 위한 단위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는 진려봉(2012)에서 말하는 '단위화 기능'과 일치한다. 그리고 그러한 기능에 걸맞게, 본 연구에서는 '분류사' 또는 '수 분류사'라는 명칭 대신에 '단위사'로 부르기로 한다.

김영희(1981)는 한국어학계에서 처음으로 단위사를 본격적으로 언급한 연구로(진려봉 2012: 60), 본 연구의 단위사에 대응하는 개념을 '수량 단위어(numeral counter)'로 칭했다. 김영희(1981)에서는 셈숱화(quantification)를 표현하는 네 가지 방식을 소개하는데, 그 중에는 수사와 수량 단위어로 이루어진 구성, 또는 수사만을 사용하여 그 앞의 명사(구)를 특칭 셈숱화(existential quantification)하는 방식이 있다. 김영희(1981)의 수량 단위어는 두 가지 기능 중 하나를 담당할 수 있다. 다음은 두 기능의 예다.

(6) ㄱ. 옷 가지가 변변치 못하다.
ㄴ. 옷이 {한 가지/하나}가 변변치 못하다.

(6ㄱ)은 수사가 개입하지 않은 채로 수량 단위어가 독립적으로 셈숱말이 되는 경우이며, 이 경우 수량 단위어는 적극적 셈숱화의 기능을 담당하는 '부류 셈숱말(sortal quantifiers)'로 불린다. (6ㄴ)은 수사와 수량 단위어가 결합한 후에 앞선 명사가 지시하는 대상을 이차적으로 의미 범주화하는 기능의 예를 보이며, 이때의 수량 단위어는 '가름말(classifiers)'로 불렀다.

박성훈(1985)에서는 '수량을 헤아리는 기준이 되거나 분량의 표준이 되는 것을 이르는 말'을 '단위어'로 지칭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1900년대 이전의 문헌에 등장하는 단위어에 대해, 그 뜻과 그것이 수를 세는 물건을 살펴본다. '길이, 낱개, 짝, 묶음·덩이, 양, 토지의 넓이' 등 여섯 개의 유형으로 나누고 이들 유형에 속하지 않는 것들은 '기타' 유형으로 따로 다루었는데, 사태의 횟수를 세는 단위어로 '기(起)'를 제시하면서 '"번"이나 "차례"를 나타내는 단위어'라고 설명하였다(박성훈 1985: 233).

박진호(2011)에서는 한국어학계에서 통용되는 '분류사'라는 용어가 언어유형론적으로 쓰이는 분류사의 의미와 일치하지 않아 혼란이 있을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그리고 이 성분의 주 기능은 명사의 의미 분류가 아닌 단위 제공에 있으므로 '단위사'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것이 더 적합하다고 주장했다.

2.1.3. 사태 단위사에 관한 연구

앞선 연구 중, 사태 단위사의 존재를 인지한 논문을 간략하게 살펴보자. 먼저 성광수(1975)에서는 양사 중 '동량(動量)'을 세는 양사가 있음을 인지하고, 이 유형에 속하는 것으로 '회(回), 주(周), 차(次), 번(番)'을 제시하였다.

박성훈(1985)과 채완(1990)에서는 사태 단위사의 존재를 인지하였으나 이것을 물질 단위사와 별개의 유형으로 이해하지는 않았다. 박성훈(1985)에서는 고문헌에 등장한 단위어 중 횟수 세는 말로 '기(起)'를 들었으나 그 외에 더 제시하지는 않았고, 이 유형을 다른 단위어와 함께 한 부류로 묶어 제시하였다. 채완(1990)에서도 '행위·사건 명사에 연결되는 분류사'를 제시하지만 명사에 연관된 부류분류사의 일종으로 보아, 물질 단위사와 사태 단위사를 구분하여 분석하지는 않았다.

곽추문(1996)은 사태 단위사를 물질 단위사로부터 분리하여 이해하기 시작한 연구다. 이 연구에서는 중국어의 '양사' 내에서 하나의 범주를 이루는 '동량사'에 착안하여 한국어에서도 '분류사' 내에서 행위나 사건의 횟수를 세는 '동작 분류사' 유형을 상정하였다.

우형식(2001: 148-149)에서는 명목 척도의 [횟수]의 분류사가 있다고 말하며, 이들은 명사가 뜻하는 동작이 반복되는 횟수를 단위화하는 기능을 가진다고 설명하였다. 그런데 사태 단위사가 세는 동작이 명사로만 나타나는 것은 아니며, 동사로도 사태를 나타낼 수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박진호(2011)에서는 단위사를 수 단위사와 양 단위사로 나누고, 수 단위사를 다시 개체 단위사, 집합 단위사, 사건 단위사로 나누었다. 그

중 사건 단위사의 예로 ‘번, 차례, 회, 바퀴, 순배, 판’을 제시하였다.

진려봉(2012)에서는 행위·사건의 수를 세는 요소가 사건명사를 상정할 수 있다면 단위명사이자 수 분류사인 것으로 판단하고, 사건명사를 상정할 수 없다면 수 분류사가 아닌 그저 단위명사로 판단하였다. 이 기준에 따라, 행위·사건의 수를 세는 수 분류사가 아니라 단위명사로 판단되는 것으로 다음의 어휘 항목을 들었다.

(7) ㄱ. 《표준국어대사전》에 의존명사로 등재된 항목: 걸음, 고팽이1, 교2(校), 동6, 바퀴1, 배1, 발1, 발자국, 발짝1, 사리2, 수3(手), 잠1, 점10(點), 주9(周), 탕1, 합1(合), 홰1
ㄴ. 《표준국어대사전》에 의존명사로 등재되지 않은 항목: 눈, 숨, 주먹, 바늘, 참

그리고 행위·사건의 수를 세는 수 분류사로는 다음 (8)의 어휘 항목을 제시하였다.

(8) 거리4, 건3(件), 게임, 끼1, 끼니, 대1, 돌림1, 때1, 바탕2, 발9(發), 방10(放), 번4(番), 벌5, 범4(犯), 보지락, 순배(巡杯), 직1, 차례2(次例), 켜, 통11(通), 판1, 프레임(frame), 회4(回)

채옥자(2012)는 본 연구의 ‘사태 단위사’에 해당하는 ‘동작 단위사’의 개념적 정의를 내리고, 단위사 체계 내에서 사태 단위사의 위치를 정립하고자 한 연구다. 사태 단위사의 구체적인 목록을 제시하고 있지는 않지만, 대표적인 사태 단위사로 ‘번, 차례, 회, 바퀴, 바탕, 판, 끼’를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횟수를 세는 단위를 제공하는 것을 사태 단위사의 주된 기능으로 보았다. 주목할 점은, 사태 단위사의 정의 및 기능을 명확히 하기 위해 수량 범주에 관한 인지언어학적 고찰을 진행하였다는 것이다. 또한 사태 단위사가 사건의 횟수를 나타낼 수도 있고 동작의 횟수를 나타낼 수도 있는데, 전자인 사태 단위사는 상대적으로 긴 시간성을 가지고 후자인 사태 단위사는 상대적으로 짧은 시간성을 가진다고

보았다. 다만 사건과 동작의 차이를 명확히 밝히지 못했다는 한계를 지닌다.

지금까지 살펴본 선행 연구에서 사태 단위사로 인정한 어휘 항목은 다음과 같다.[7)]

[표 2-1] 선행 연구의 사태 단위사[8)]

단어	품사	성광수 (1975)	채완 (1990)	곽추문 (1996)	우형식 (2001)	박진호 (2011)	진려봉 (2012)	채옥자 (2012)
가지4	의명		○					○
거리4	의명		○				○	
건3(件)	의명		○		○		○	
걸음	명사							○
게임	명사						○	
고팽이1	명사							
곡2(曲)	명사		○					
끼1	명사			○			○	○
끼니	명사			○			○	
대1	의명			○	○		○	
돌림1	명사						○	
땀2	명사			○				
때1	명사						○	
마디1	명사		○					
모금1	의명			○				
물4	의명							○
바퀴1	의명			○		○		○
바탕2	의명			○			○	○
발9(發)	의명			○	○		○	
방10 (放)	의명		○	○			○	
배1	명사			○				
번4(番)	의명	○	○	○	○	○	○	○
벌5	의명						○	
범4(犯)	의명						○	

7) 김영희(1981)에서는 사태 단위사의 구체적인 목록을 제시하지 않았다. 박성훈(1985)에서는 사태 단위사의 기능을 가지는 단어로 '기'(起) 하나를 제시하였으나, 이는 현대 한국어에서는 단위사의 용법으로 쓰이지 않으므로 목록에서 제외하였다.

8) 품사 중 '의명'은 '의존명사'를 줄여 표현한 것이다. 표에 포함된 '허리'는 채완(1990)에서 '씨름'에 관한 사태의 횟수를 세는 단위사로 제시한 것이다. 그러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없고, 실제 용례나 사전상의 정보를 찾을 수 없어 품사 정보를 알 수 없었다.

보지락	의명						○	
사리2	명사			○				
수3(手)	의명							○
순배(巡杯)	명사					○	○	
입	명사			○				
장6(杖)	의명							
직1	명사						○	
차4(次)	의명	○						
차례2(次例)	명사			○	○	○	○	○
켜	명사						○	
틱3	명사			○				
통11(通)	의명			○			○	
판1	의명		○	○	○	○	○	○
프레임(frame)	의명						○	
허리			○					
홰1	의명		○	○				
회4(回)	의명	○	○			○	○	○

2.2. 단위사의 정의적 조건

표 2-1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사태 단위사로 인정되는 어휘 항목의 목록은 선행 연구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따라서 사태 단위사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기에 앞서, 단위사 및 사태 단위사를 판별하는 기준을 체계적으로 정립하는 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단위사를 판별하는 기준을 '범주적 조건', '분포적 조건', '기능적 조건'으로 나누어 세웠다. 그 내용은 다음 (9)와 같다.

(9) 단위사의 정의적 조건
ㄱ. 범주적 조건: 자립명사와 의존명사를 포함하는 명사 범주
ㄴ. 분포적 조건: 수량표현을 상정할 때, 핵 명사와 수량을 나타내는 관형사 뒤

ㄷ. 기능적 조건: 셈의 대상을 단위화하는 기능

(9ㄱ)에서는 단위사가 문법적으로 어느 범주에 속하는지를 규정하고 있다. 전통적으로 단위사는 의존명사의 하위 범주로 여겨지는 경향이 있었다. 단위사에 관한 초기의 연구에서는 셈의 단위를 제공하는 기능을 가지는 이들 성분을 '수단위 불완전 명사'(최현배 1955, 정인승 1956; 진려봉 2012에서 재인용)와 같은 명칭으로 부르며 이들을 의존명사의 한 부류로 보았다. 그러나 오직 의존명사만 단위사로 사용되는 것은 아니며, 원래 자립명사로 사용되는 단어가 수량을 나타내는 관형사 뒤에 쓰이면 의존명사의 용법을 보이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걸음'은 《표준국어대사전》에 다음과 같이 기술되어 있다.

(10) 걸음 「명사」
1. 두 발을 번갈아 옮겨 놓는 동작.
㉠ 급한 걸음.
2. 일정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움직임.
㉠ 걸음을 돌리다.
3. 나아가는 기회.
㉠ 우체국에 가는 걸음이 있거든 이 편지도 좀 부쳐 주세요.
4. 내왕하는 일.
㉠ 그런 곳에 가는 게 나쁘게 느껴져 걸음을 끊어 버렸다.
5. 행동이나 활동 또는 결정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보다 나은 장래를 위하여 새로운 걸음을 내딛도록 합시다.
6. ((수량을 나타내는 말 뒤에 쓰여)) 두 발을 번갈아 옮겨 놓는 횟수를 세는 단위.
㉠ 한 걸음.

(10)에서 알 수 있는 '걸음'의 기본 의미는 '두 발을 번갈아 옮겨 놓는 동작'이라는 자립명사적 의미이며, 이 뜻과 사전의 품사 정보에 의

하면 ‘걸음’은 자립명사다. 그러나 ‘걸음’이 6번 뜻의 예문과 같이 수량을 나타내는 ‘한’ 뒤에 나타나면 마치 의존명사처럼 셈의 단위를 제공하는 기능을 가지게 된다. 이런 양상을 보이는 명사는 ‘걸음’만 있지 않으며, 본 연구를 위해 검토한 선행 연구에서 자립명사임에도 셈의 단위로 쓰인 것은 57개 가운데 29개였다. 따라서 초기 연구에서 설정하였던 것처럼 단위사를 의존명사 범주로 국한할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단위사의 범주적 조건을 ‘자립명사와 의존명사를 포함하는 명사 범주’로 설정할 수 있겠다.

(9ㄴ)에서는 단위사의 분포적 조건을 설정하고 있다. 단위사의 분포적 조건은 가장 우선적으로, 수량 표현[9] 안에서 나타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본고에서 수량 표현이란 ‘핵 명사[10] + 수량을 나타내는 관형사 + 단위사’의 구성을 의미한다.

(11) ㄱ. 저기 서 있는 두 {청년/명}은 누구야?
ㄴ. 저기 서 있는 남자 두 {*청년/명}은 누구야?

(11ㄱ)은 수량을 나타내는 관형사와 단위사가 쓰인 문장이고, (11ㄴ)은 (11ㄱ)에 핵 명사 ‘남자’를 추가하여 온전한 수량 표현을 만든 문장이다. ‘수량 표현 내’라는 조건을 세우지 않는다면 (11ㄱ)에서 ‘청년’과 ‘명’은 수량을 나타내는 관형사 ‘두’ 뒤에 나타나므로 모두 단위사라고 생각될 수 있다. 그런데 주목할 점은, (11ㄴ)에서 ‘명’과 달리 ‘청년’은 ‘남자 두 ___’라는 수량표현에서 단위사가 채워져야 할 빈칸을 채우기를 거부한다는 것이다.[11] 단위사는 어떤 것을 셀 때, 그 셈의 단위를

9) 기존의 연구에서는 ‘수량사구’(채완 1982, 1983), ‘분류사 구성’(임홍빈 1991/1998ㄴ) 등으로 일컬어졌다.

10) 선행 연구에서는 ‘수량단위명사’ 또는 ‘단위명사’(임홍빈 1998), ‘핵 명사’(박진호 2011), ‘선행명사’(사타 자코모 2019) 등으로도 불렸다. 본 연구에서는 수량 표현 내에서 명사가 수량 표현의 핵이 된다는 점에 주목하여 ‘핵 명사’라는 명칭을 사용한다.

11) 이 예와 동일한 경우는 아니지만, ‘청년 두 청년’과 같이 핵 명사를 반복하여 단위사처럼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는 언어도 있다. Thai어에서는 ‘prathêet săam prathêet’(land three CL:LAND)와 같이, 미얀마어에서는 ‘myiʔ tə myiʔ’(river one CL:RIVER)와 같이 핵 명사를 반복하여 단위사로

제공하는 것이 일차적인 목적이자 기능인데 (11ㄴ)에서 '두' 뒤에 등장하는 '청년'은 단위의 기능을 수행할 것을 거부한다. 따라서 (11ㄴ)의 '청년'은 셈의 단위를 제공하는 단위사가 아니다. 반면 (10ㄱ)에서 수량 표현 내에 나타나지 않은 '명'이 단위사가 될 수 있는 이유는, (11ㄴ)처럼 핵 명사 '남자'가 상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단위사는 관형사 뒤에서만 나타날 수 있다. 특이한 것은, 단위사가 수량을 나타내는 수 관형사 뒤에서만 나타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단위사 '채', '바퀴'가 사용된 다음 예문을 보자.

(12) ㄱ. 새로 지어지는 집은 몇 채입니까?
ㄴ. 이곳은 작은 집 몇 채만이 마을을 이루며 살아가고 있다.
ㄷ. 지각한 학생들은 운동장을 여러 바퀴 뛰어야 한다.

(12ㄱ)과 (12ㄴ)은 물질 단위사 '채'가, (12ㄷ)은 사태 단위사 '바퀴'가 사용되었다. (12ㄱ)에서 '채' 앞에 쓰이는 '몇'은 의문을 나타내는 관형사로, 수량에 관한 정보를 가지는 표현으로 채워질 것으로 요구하는 관형사다. (12ㄴ)에서 '채' 앞에 쓰이는 '몇'은 (12ㄱ)의 '몇'과 형태가 동일하고 품사도 동일하게 관형사이며, 그 의미는 많지 않은 수를 어림잡아 표현하는 말이다. (12ㄷ)에서 '바퀴' 앞에 쓰이는 '여러'는 하나나 둘보다 많은 수를 어림잡아 표현하는 관형사다. (12)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단위사는 '한, 두, 세, 네, 다섯, ...'과 같이 전형적인 수 관형사뿐 아니라 '몇, 여러'와 같이 어림수를 표현하는 관형사나 수량에 대한 의문을 표현하는 관형사 뒤에 나타날 수도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들 관형사를 '수량을 나타내는 관형사'로 통칭하기로 한다. 즉 단위사는 수량을 나타내는 관형사 뒤에 나타나는 분포 양상을 가진다. 정리하면, 본 연구에서 설정하는 단위사의 분포적 조건은 '수량표현을 상정하였을 때, 핵 명사와 수량을 나타내는 관형사 뒤'이다.

(9ㄷ)에서는 단위사의 기능적 조건을 설정하였다. 앞서 '수량 표현

사용하는 일이 가능한데, 이러한 구성을 '반복소 구문(repeater construction)'이라고 한다(우형식 2001: 48; Diller 2008: 40; 박진호 2011: 26).

내'라는 분포적 조건을 설정할 때 살폈던 것처럼, 단위사의 일차적인 기능은 셈의 대상을 단위화하는 기능이다. 불가산 명사라도 단위사를 사용하게 되면 셀 수 있게 된다는 점이 단위사의 유용한 효과 중 하나다. 다음 (13)을 보자.

(13) ㄱ. 철수는 사탕을 먹었다.
ㄴ. 영희는 물을 마셨다.
ㄷ. 철수는 사탕 {하나/한 개}를 먹었다.
ㄹ. 영희는 물 {*하나/한 모금/한 잔}을 마셨다.

(13ㄱ)은 가산 명사인 '사탕'이 술어 '먹다'의 목적어로 쓰인 문장이고, (13ㄴ)은 불가산 명사인 '물'이 술어 '마시다'의 목적어로 쓰인 문장이다. '사탕'과 '물'의 수를 세어 표현하는 문장을 적는다면, (13ㄷ)과 (13ㄹ)처럼 쓸 수 있다. 주목할 점은 (13ㄷ)에서 '사탕'은 셈의 단위가 없는 '사탕 하나'로도, 셈의 단위가 있는 '사탕 한 개'로도 쓰일 수 있으나 (13ㄹ)에서 '물'은 셈의 단위가 없는 '물 하나'로 쓰일 수 없다는 것이다. 이는 '물'이 셀 수 없는 명사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물질 단위사 '모금'과 '잔'을 사용하여 '물 한 모금', '물 한 잔'과 같이 적는다면 셈의 대상인 '물'은 단위를 획득하여 셀 수 있게 된다.

2.3. 사태 단위사의 정의적 조건

단위사는 셈의 대상이 무엇인지에 따라 물질 단위사와 사태 단위사로 나눌 수 있다. 물질 단위사는 셈의 대상이 물질인 단위사이고, 사태 단위사는 셈의 대상이 사태인 단위사이다. 물질 단위사와 사태 단위사는 모두 단위사에 포함되는 하위 부류이므로 기본적으로 단위사의 정의적 조건인 (9)와 동일한 조건을 적용할 수 있다. 다만 그 셈의 대상이 다르므로, 단위화 기능을 명시한 '기능적 조건'을 단위사의 하위 부류에 따라 (14)와 같이 부기할 수 있다.

(14) ㄱ. 물질 단위사: 셈의 대상인 **물질**을 단위화하는 기능
ㄴ. 사태 단위사: 셈의 대상인 **사태**를 단위화하는 기능

또한, 사태 단위사는 사태의 횟수를 세기 위한 단위사인데 셈의 대상인 사태가 무엇인지에 따라 수량 표현의 핵 명사가 표면에 드러나는 것이 자연스럽지 못한 경우가 있다.

(15) ㄱ. 언제 {∅/밥} 한 끼 먹자.
ㄴ. 그는 떨고 있는 아이에게 {∅/*걸음} 한 걸음 다가갔다.

(15ㄱ) 문장에서는 수량 표현의 핵 명사 '밥'이 표면에 드러나지 않는 경우와 드러나는 경우 모두 자연스럽지만, (15ㄴ)은 수량 표현의 핵 명사가 표면에 드러나지 않는 경우만이 자연스럽다. 전자의 문장에서는 '끼'가 횟수를 세는 사태가 '밥을 먹는' 사태이며 이 사태의 대상역 논항 '밥'이 수량 표현의 핵 명사로서 표면에 드러나기 쉽다. 반면 후자의 문장에서는 '걸음'이 횟수를 세는 사태가 '다가가는' 사태이며 이 사태의 대상역 논항이 상정되지 않아 수량 표현의 핵 명사가 표면에 드러나는 것이 곤란하다. 따라서 사태 단위사의 분포적 조건은 핵 명사가 표면에 나타날 수 있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분리하여 설정해야 한다.

종합하면, (9)에서 설정한 단위사의 정의적 조건은 단위사의 하위 부류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체화할 수 있다.

(16) 물질 단위사의 정의적 조건
ㄱ. 범주적 조건: 자립명사와 의존명사를 포함하는 명사 범주
ㄴ. 분포적 조건: 수량표현을 상정할 때, 핵 명사와 수량을 나타내는 관형사 뒤
ㄷ. 기능적 조건: 셈의 대상인 **물질**을 단위화하는 기능

(17) 사태 단위사의 정의적 조건

ㄱ. 범주적 조건: 자립명사와 의존명사를 포함하는 명사 범주
ㄴ. 분포적 조건:
① 핵 명사가 표면에 나타날 수 없는 경우, 수량을 나타내는 관형사 뒤
② 핵 명사가 표면에 나타날 수 있는 경우, 핵 명사와 수량을 나타내는 관형사
ㄷ. 기능적 조건: 셈의 대상인 **사태**를 단위화하는 기능

물질 단위사와 사태 단위사의 차이는 네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 번째 차이는, 물질 단위사로 단위화된 대상은 양도할 수 있는 반면 사태 단위사로 단위화된 대상은 양도할 수 없다는 점이다. 다음 (18)을 보자.

(18) ㄱ. 물 두 잔만 주세요.
ㄴ. 물 두 모금만 주세요.
ㄷ. #물 두 번만 주세요.

(18ㄱ)의 '잔'은 음료나 술을 따라 마시는 그릇이라는 뜻의 명사에서 유추된 물질 단위사로, '음료나 술을 잔차나 커피 따위의 음료를 따라 마시는 데 쓰는 작은 그릇이나 잔술을 따라 마시는 그릇에 담아 그 분량을 세는 단위'라는 의미를 가진다. 이 단위사가 그러한 의미를 가지게 된 것은 이것이 자립명사로 쓰일 때 실세계에서 음료를 따라 마시는 그릇, 즉 용기(容器)를 가리키기 때문이다. 즉 (18ㄱ)의 '잔'이 세는 대상이 '물'인 이유는 '잔'이 '물'을 담기 위한 용기라는 점에 있다.

용기는 어떤 물질을 담기 위한 물리적 단위이다. 예컨대 용기의 한 종류인 '컵', '잔', '병'은 대체로 액체인 물질을 담기 위한 물리적 단위인데, 더 구체적으로는 '물컵', '소주잔', '콜라병'도 이러한 물리적 단위에 해당한다. 그리고 '그릇'은 대체로 고체인 음식물을 담기 위한 물리적 단위이고, 더 구체적으로는 '반찬 그릇, 밥그릇'같은 물리적 단위도 있다. 그런데 이들 용기가 언어적 단위로 변환되면 '콜라 병'이나 '밥그

릇’ 같이 구체적인 물리적 단위는 변환 대상에서 탈락하고, 좀 더 범용적이고 일반적인 ‘컵, 잔, 병, 그릇’은 언어적 단위로 변환될 수 있다. 그리고 이들은 언어적 단위가 되어서도 ‘물질을 담는 단위’라는 용기의 본래 기능을 잃지 않는다. (18ㄱ)의 ‘물 두 잔’은 잔에 담긴 물을 두 번 연달아 마시는 것, 즉 행위의 횟수가 둘이라는 것이 아니라 ‘잔’이라는 물리적 단위에 의해 단위화된 물이 둘임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리고 (18ㄱ)은 이러한 물 단위 둘을 달라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잔’은 물질 단위사에 해당한다.

(18ㄴ)의 ‘모금’은 ‘잔’과 달리 자립명사로 쓰이지 않지만, ‘잔’과 유사한 원리로 물질 단위사이다. ‘모금’은 ‘액체나 기체를 입 안에 한 번 머금는 분량을 세는 단위’이며, 곧 ‘입’이라는 신체 기관의 머금는 동작에 따른 단위이다.[12] 신체 기관의 동작에서 비롯된 단위사이므로 사태 단위사로 이해할 수도 있겠지만, ‘모금’은 분명히 물질의 분량을 단위화하는 단위사이다. (18ㄴ)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물 두 모금’은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는 것이며, 수여의 대상역으로 수행할 수 있다. 비록 (18ㄴ)과 같은 문장을 일상적으로 사용하지는 않지만, ‘물 한 모금’보다는 조금 더 많은 분량의 물을 달라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어렵지 않다.

그러나 (18ㄷ)의 ‘번’은 ‘잔, 모금’과 사정이 다르다. (18ㄷ)만으로는 아래 (19ㄱ)처럼 사람인 화자에게 물을 달라는 것으로 이해하기는 다소 어려워보이며, (19ㄴ)처럼 ‘물을 주다’가 가지는 특수한 의미가 발동되는 것 같다.

(19) ㄱ. ??나에게 물 <u>두 번</u>만 주세요.
ㄴ. 선인장에는 물을 한 달에 <u>두 번</u>만 주세요.

본 연구에서 사태 단위사로 분류한 요소들을 수여의 대상역으로 이해

12) 이에 관해 진려봉(2012: 44-45)에서는 ‘명사 지시대상의 모양이나 형태 등 속성과 관련되는’ 요소를 ‘일시적인 도량형’이라는 범주로 묶은 바 있다. 신체와 관련되는 일시적 도량형으로는 ‘모금, 움큼’을 예로 들었고, 그 밖에도 ‘단, 다발, 묶음, 줌’ 등이 일시적인 도량형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하는 것은 어려워 보인다. (20)에서는 가장 대표적인 수여 사태인 '주다'를 활용한 문장에 사태 단위사를 삽입해 보았다.

(20) ㄱ. *두 걸음 주세요.
ㄴ. *두 땀 주세요.
ㄷ. *두 바늘 주세요.
ㄹ. *(운동장) 두 바퀴 주세요.
ㅁ. *두 발자국 주세요.

이에 따르면 본 연구에서 관심을 가지는 사태 단위사가 포함된 논항은 수여의 대상역으로 기능하기 어렵다.

사태 단위사와 물질 단위사는 공기할 수 있는 부사 부류가 다르다. (18ㄱ, ㄴ)와 달리 (18ㄷ)의 '물 두 번'은 어느 정도 양의 물을 의미하는 것인지 분명하지 않다. 이 '분명하지 않음'은 '번'이라는 단위가 본래 양이 아닌 빈도, 횟수와 관련되기 때문이다. 아래 (21)의 문장들을 보면 '잔, 모금'과 '번' 사이의 차이가 더 뚜렷해진다.

(21) ㄱ. 물은 한 {번/*잔/*모금}만 조금 주세요.
ㄴ. 물은 한 {*번/잔/모금}만 자주 주세요.

(21ㄱ)은 양의 부사 '조금'이 들어간 문장이고, (21ㄴ)은 시간 부사 '자주'가 삽입된 문장이다. 물질 단위사 '잔, 모금'은 양의 부사 '조금'과 공기할 수 없고, 사태 단위사 '번'은 시간 부사 '자주'와 공기할 수 없다.

물질 단위사와 사태 단위사가 가지는 또 다른 차이는 동시 수행 가능성이다. 사태 단위사가 쓰인 문장에서 사태는 그 수량 관형사의 값만큼 순차적으로 반복되어 발생한다. 반면 물질 단위사가 쓰인 문장에서 사태는 동시에 일어날 수 있다. 예컨대, '사진 네 방을 찍다'에서 '사진 네 방'은 동시에 찍는 것이 아니라 순차적으로 찍는 것으로 이해된다. 반면 '사탕 네 개를 먹다'라는 문장은 '사탕 네 개'를 순차적으로 먹는 것

으로 이해할 수도 있지만, 네 개를 한꺼번에 입 안에 넣고 동시에 먹는 것으로 이해하는 데에도 무리가 없다.

두 단위사 부류의 동시성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네 번째 차이점은 바로 수량을 나타내는 관형사의 값과 사태가 발생한 횟수가 일치하는지의 여부다. 다음 (22)를 보자.

(22) ㄱ. 하루 동안 다섯 끼를 먹는다.
ㄴ. 대포를 열 발 쏘았다.

사태 단위사에 선행하는, 수량을 나타내는 관형사의 값은 발생한 사태의 횟수와 반드시 일치한다. 이는 사태 단위사를 사용함으로써 관형사의 값만큼 순차적으로 사태가 발생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22ㄱ)에서 '먹는 사태'는 다섯 번이 순차적으로 일어나야 하며, 다섯 번을 동시에 먹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자연히 '먹는 사태'의 발생 횟수는 5회가 되며, 이 값은 수량을 나타내는 관형사 '다섯'과 일치한다. 반면 개체 단위사가 쓰인 문장의 경우 사태가 동시에 일어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개체 단위사에 선행하는, 수량을 나타내는 관형사는 발생한 사태의 횟수와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는다. (22ㄴ)에서 열 발의 대포는 동시에 발사될 수도 있고, 순차적으로 발사될 수도 있다. 이 경우 '쏜 사태'의 발생 횟수는 분명하지 않으며, 맥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수량을 나타내는 관형사 '열'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

요컨대, 물질 단위사와 사태 단위사의 차이는 다음과 같다.

(23) ㄱ. 물질 단위사로 단위화된 대상은 양도할 수 있고, 사태 단위사로 단위화된 대상은 양도할 수 없다.
ㄴ. 물질 단위사는 양의 부사와 공기할 수 없고, 사태 단위사는 시간 부사와 공기할 수 없다.
ㄷ. 물질 단위사가 쓰인 문장에서 사태는 그 수량 관형사의 값만큼 동시에 일어날 수 있고, 사태 단위사가 쓰인 문장에서 사태는 그 값만큼 순차적으로 반복되어 발생한다.

ㄹ. 수량을 나타내는 관형사의 값과 사태가 발생한 횟수는 물질 단위사가 쓰인 문장에서 일치하지 않을 수 있고, 사태 단위사가 쓰인 문장에서는 반드시 일치한다.

이러한 조건에 근거하여 본 연구에서 살펴볼 사태 단위사의 목록은 앞서 확인한 (1)과 같다.

(1) 걸음, 끼1, 끼니, 땀2, 바늘, 바퀴1, 발1, 발자국, 발짝1, 방10(放), 배1, 번4(番), 수3(手), 순3(巡), 순배(巡杯), 차례2(次例), 코2, 탕1, 통화4(通話), 판1, 홰1, 획2(劃)

본 연구에서 살펴볼 사태 단위사의 목록을 (1)로 제시하는 것은 사태 단위사 부류가 다른 항목은 추가될 수 없는 폐쇄 집합임을 의미하지 않는다. 사태 단위사를 정의하는 조건 (17)에 부합하며 물질 단위사와는 (23)과 같은 차이를 가진다면, 현재 단위사의 용법을 가지지 않는 단어들도 미래에 얼마든지 사태 단위사에 속할 수 있다. 다만 연구의 편의와 시의성을 고려하여 (1)과 같이 한정된 목록을 제시한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복수의 선행 연구에서 사태 단위사로 본 '바탕'이 위 기준에 근거하여 사태 단위사로 분류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검증하였다. 다음은 《표준국어대사전》에서 찾을 수 있는, 사태의 횟수와 연관되는 '바탕'의 뜻풀이와 예문이다.

(24) 바탕2 「의존명사」
2. 어떤 일을 한 차례 끝내는 동안을 세는 단위.
㉠ 씨름을 몇 바탕 하다.

'바탕'과 가장 자주 공기하는 동사는 '웃-', '하-', '벌이-', '치르-' 등이 있다. 이들을 비롯하여 가장 자주 공기하는 동사 10개의 빈도와 비율은 다음과 같다.

동사	빈도(회)	비율(%)
웃-	55	9.14
하-	45	7.48
벌이-	39	6.48
치르-	30	4.98
벌어지-	23	3.82
놀-	19	3.16
추-	16	2.66
일어나-	14	2.33
나-	13	2.16
치-	13	2.16

[표 2-2] '바탕'과 공기하는 고빈도 동사

말뭉치에서 수량을 나타내는 관형사와 '바탕'이 함께 나타난 용례를 검색한 결과, 대부분이 명사 또는 부사 '한바탕'의 용례였고 나머지는 '판소리 다섯 바탕', '활 한 바탕' 등 '바탕'이 물질 단위사로 쓰인 용례였다. 사태의 횟수를 세는 '바탕'의 용례에서 선행하는 수 관형사로는 '한'만이 함께 쓰인다는 점에서, '바탕'은 사태 단위사로서 더 이상 생산적으로 쓰이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한 단어인 '한바탕'으로 나타난 용례는 다음과 같다.

(25) ㄱ. 한바탕 크게 웃고 싶다면 이 영화를 추천 드립니다.
ㄴ. 또 싸움들이나 한바탕 하고 용두사미가 안 되겠는가.
ㄷ. 세 사람은 한바탕 싸움을 벌였다.
ㄹ. 사무실 안은 한바탕 전쟁을 치른 뒤끝처럼 허탈감만이 맴돌았다.

'한'과 '바탕'이 결합한 단어 '한바탕'은 이미 1482년 간행된 《남명집언해》에서 'ᄒᆞᆫ바탕'처럼 하나의 구성으로 굳어져 부사로 쓰였다. 이러한 쓰임은 19세기 국어 문헌까지도 발견되며, 이후 'ㆍ'의 표기가 이루

어지지 않으면서 오늘날 '한바탕'으로 쓰이게 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바탕'이 단위사, 특히 사태의 횟수를 세는 사태 단위사로서 생산적인 기능을 더 이상 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연구 대상인 (1)의 목록에 포함하지 않았다.

2.4. 사태 단위사의 범용성과 중립성

Lyons(1977: 461)에서는 의미적으로 중립적인 분류사(semantically neutral classifier)와 의미적으로 특수한 분류사(semantically specialized classifier)를 구분하면서 많은 분류사 언어(classifier language)에서 전자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리고 의미적으로 중립적인 분류사의 예로 중국어의 '个'[gè]를 제시하였는데, 이 분류사는 '三个苹果'(사과 세 개)와 '两个人'(두 사람)처럼 사물과 사람을 막론하고 사용될 수 있다. 한국어에서 가장 범용적으로 사용되는 사태 단위사로는 '번(番)'을 꼽을 수 있겠다. 3.2절에서 확인하겠지만, '번'은 다양한 동사와 공기하며 '번'과 공기하는 동사의 분포는 말뭉치에 나타나는 동사의 분포와 가장 비슷하다. 이는 '번'이 실제 언어 생활에서 쓰이는 거의 모든 동사와 사용되며(범용성), 의미적으로 중립적이어서 다른 단위사로 바꾸어 쓰일 때의 의미 변화를 포착할 수 있음(중립성)을 뜻한다. 바꾸어 말하면, '번'과 달리 일부 동사와 제한적으로 공기하는 단위사는 범용적이거나 중립적이지 않은 단위사임을 의미한다.

그러나 범용적·중립적인 '번'이 모든 사태의 횟수를 셀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때로는 '번' 대신 다른 단위사를 사용하는 것이 더 적절한 의미를 표현하는 경우가 있다. 다음 예문을 보자.

(26) ㄱ. 시민들께 한 번 더 다가가겠습니다.
ㄴ. 시민들께 한 걸음 더 다가가겠습니다.

(26ㄱ)에서 '한 번'이 세는 사태는 '시민들께 다가가는 것'인데, 이 경우의 '다가가는' 사태는 행위자가 자신의 위치에서 출발하여 대상의

위치에 도달하는 사태의 전 과정을 뜻한다. 이를 Vendler(1957)의 상 이론에 등장하는 '상태성(stativity), 종결성(telicity), 순간성(punctuality)' 자질로 옮기면 '한 번 다가가는' 사태는 [−상태성, +종결성, −순간성]의 상적 자질을 가지는 '완성' 유형에 해당한다. (26ㄴ)에서 '한 걸음'이 의미하는 사태도 '시민들께 다가가는 것'으로 동일해 보이지만, 이 경우의 '다가가는' 사태는 '한 걸음'을 걷는 사태가 여러 번 반복되는 것으로 이루어져 있음을 뜻한다. 즉 '걸음'이 가지는 의미는 '다가가는 사태'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두 발을 번갈아 옮겨 놓는' 동작을 짧은 시간 동안 더 행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한 걸음 다가가는' 사태는 [−상태성, +종결성, +순간성]의 상적 자질을 가지는 '달성' 유형에 해당한다.[13)]

다만 정도성의 측면에서 더 범용적인 사태 단위사와 그렇지 않은 사태 단위사를 구분할 수는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번'은 사태 단위사 중 매우 범용적인 편에 속할 것이다. 반면 '새벽에 닭이 올라앉은 나무 막대를 치면서 우는 차례를 세는 단위'를 뜻하는 '홰'는 매우 특수한 사태 단위사에 해당할 것으로 짐작된다. 본 연구에서 선정한 22개 사태 단위사의 범용성은 3장에서 계량적으로 확인한다.

13) Vendler(1957)의 상 이론에 기초하여 사태 단위사가 상황 유형을 변화시키는 힘을 가진다는 내용은 4장에서 상세히 다룬다.

3. 사태 단위사와 동사의 공기 관계

3.1. 말뭉치 개요 및 용례 추출

사태 단위사의 용례를 검토하기 위해 분석하고자 하는 말뭉치는 국립국어원 ‘모두의 말뭉치’와 인터넷 게시판의 게시글을 수집하여 구성한 62억 어절 규모의 말뭉치이다.

이 중 수 관형사와 사태 단위사의 조합으로 용례를 추출한 후, 품사를 고려한 용례 추출을 위해 각 용례별로 Python(v3.8.10)의 KoNLPy(v0.5.2) 패키지 내 Komoran 클래스를 사용하여 형태소 분석 및 품사 태깅을 진행하였다. 그 후 ‘수량을 나타내는 관형사 + 각 사태 단위사’ 구성이 포함된 용례를 추출하고, 해당 용례에서 이 구성 뒤에 가장 먼저 등장하는 동사와 함께 별도의 엑셀 파일로 저장하였다. 다음은 사태 단위사 ‘바늘’의 용례와 동사를 함께 저장한 Excel 파일의 일부다.

Columi	Colun	Column3	Column4
ㅁ ㅏㄹㅁㅜㅇㅊ ㅣ/written/ㅁㅜㄴㅇ ㅓ_ㅊ ㅐㄱ-ㅅ ㅏㅇㅅ ㅏㅇ_ㅁㅜㄴㅎ ㅏㄱ.txt:2169458:그러나 열	바늘	을 깁고 머큐로크롬을 바르고 반창고를 붙인 몰골은 제쳐놓더라도 도수 높은 안경에 봉두난발, 오	깁
을 빌리자면, “사람들은 제때에 한 바늘이 나중의 아홉 바늘의 수고를 막아준다고 하면서 오늘 천	바늘	을 꿰고 있다.” 정말 그렇지 않은가? 나는 그동안 나의 또래들과 보조를 맞추지 않았다. 소로우 말	꿰
면 계약서 써야죠. 3개월에서 하루라도 빠지면 돈 들고 튄다고. 계획이라면 거대한 모자이크를 한	바늘	씩 꿰는 작업을 계속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그 모자이크의 발가락 끝 정도 보여드렸다고 생각하	꿰
밤 오토바이를 타고 오던 남편이 그만 차와 충돌해 떨어졌고 급히 차에 실어 병원으로 옮겨 142	바늘	을 꼬맨 수술에도 결국 end 우리의 마음에 켜져있는 촛불같은 사랑 점점 까맣게 타는 심지는 희신	꿰매
ㅏㄹㅁㅜㅇㅊ ㅣ/web/ㅇㅔㅂ_ㄴㅜㄹ ㅣㅅㅗㅌㅗㅇㅁ ㅏㅇ.txt:3174707:동의보감에 나온대로,무릎 네	바늘	을 꼬매서, 도가니를 먹었다. 서빙이 다소 늦더라도 이해해주세요.	꿰매
movie_subtitle/cineaste.txt:47182400:얼굴은 60	바늘	을 꼬맸고,	꿰매
movie_subtitle/cineaste.txt:47194627:얼굴은 60	바늘	을 꼬맸고,	꿰매
movie_subtitle/cineaste.txt:47197835:얼굴은 60	바늘	을 꼬맸고,	꿰매
찾은 박준영은 정밀 검사를 위해 인근 병원으로 후송됐다. 다행히 큰 부상은 아니다. 박준영은 세	바늘	을 꼬매는 간단한 치료를 받은 뒤 대표팀에 복귀했다.	꿰매
ㅁㅗㄷㅜㅇㅢㅁ ㅏㄹㅁㅜㅇㅊ ㅣ/spoken/ㅂ ㅏㅇㅅㅗㅇㄷ ㅐㅎㅘ_SB2.txt:5332476:지금 여섯	바늘	을 꼬맸다고 하고	꿰매
ㅁㅗㄷㅜㅇㅢㅁ ㅏㄹㅁㅜㅇㅊ ㅣ/spoken/ㅂ ㅏㅇㅅㅗㅇㄷ ㅐㅎㅘ.txt:12646772:지금 여섯	바늘	을 꼬맸다고 하고	꿰매
ㅁㅗㄷㅜㅇㅢㅁ ㅏㄹㅁㅜㅇㅊ ㅣ/spoken/ㅂ ㅏㅇㅅㅗㅇㅇ ㅣㄴㅌ ㅓㅂㅠ_SB2.txt:4150801:지금 여섯	바늘	을 꼬맸다고 하고	꿰매
ㅁㅗㄷㅜㅇㅢㅁ ㅏㄹㅁㅜㅇㅊ ㅣ/spoken/ㅂ ㅏㅇㅅㅗㅇㅇ ㅣㄴㅌ ㅓㅂㅠ.txt:13004889:지금 여섯	바늘	을 꼬맸다고 하고	꿰매
ㄱ.txt:95685:그날 밤 이슥해서야 승희는 압둘의 부축을 받으며 수용소로 돌아왔는데 병원에서 세	바늘	을 꼬맸다고 하며 이마에 흰 붕대를 감고 있었다. 쓰러지면서 장작개비에 맞은 것이라는 그 상처가	꿰매
en/ㅁㅜㄴㅇ ㅓ_ㅊ ㅐㄱ-ㅅ ㅏㅇㅅ ㅏㅇ_ㅁㅜㄴㅎ ㅏㄱ.txt:1358908:의사 선생님은 나를 눕혀 놓고 세	바늘	을 꼬맸다. 아팠지만 의사 선생님께서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 주시며 치료를 해주셔서 그 아픔도 9	꿰매
어머니로서의 변명이기도 했지만, 주원의 입장에서는 건전한 대학생으로서의 변명이 되어, 여덟	바늘	을 꼬맨 채 병원에 누워있던 주원은,	꿰매
를-이상한 나라의 필'을 촬영하다가 소품으로 준비돼 있던 소주병에 왼쪽 엄지손가락을 다쳐 일곱	바늘	을 꿰맸다고 밝혔습니다.	꿰매
자해를 시도하던 지인을 저지하는 과정에서 소란이 발생되었고 저의 손가락 부위가 깊게 찔려 열	바늘	을 꿰매는 부상을 입었다"고 말했습니다.	꿰매
의원은 SNS를 통해 선거 때 도와준 여성이 자해를 시도해 이를 말리는 과정에서 자신도 손에 열	바늘	을 꿰맸다고 해명했습니다.	꿰매
의원은 SNS를 통해 선거 때 도와준 여성이 자해를 시도해 이를 말리는 과정에서 자신도 손에 열	바늘	을 꿰맸다고 해명했습니다.	꿰매
의원은 SNS를 통해 선거 때 도와준 여성이 자해를 시도해 이를 말리는 과정에서 자신도 손에 열	바늘	을 꿰맸다고 해명했습니다.	꿰매
board/ppomppu.txt:4377635:이후 그는 병원으로 이송돼 네	바늘	을 꿰맨 후 CT 촬영을 받았으며, 고막이나 청력에는 이상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의료보	꿰매
board/ppomppu.txt:5745720:잔을 깨뜨리고 엄지가 찢어져서 응급실에서 마취 없이 여덟	바늘	을 꿰매고	꿰매
board/ppomppu.txt:5745724:열여섯	바늘	을 꿰맸더라도 똥구멍 세 바늘 꿰맨 거에 비할 바가 아니다.	꿰매
board/ppomppu.txt:9473117:잔을 깨뜨리고 엄지가 찢어져서 응급실에서 마취 없이 여덟	바늘	을 꿰매고	꿰매
board/ppomppu.txt:9473121:열여섯	바늘	을 꿰맸더라도 똥구멍 세 바늘 꿰맨 거에 비할 바가 아니다.	꿰매
둘로 B교사의 머리를 친 것이다.머리가 찢겨 피를 흘리며 길에 누워 있던 B교사는 병원에 가서 열	바늘	을 꿰맸다.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공격을 당한 것이다. B교사는 9일 학교에 정상 출근은 했지만 (	꿰매
다더라.그래서 입술이 맞아서 피가 많이 흘러서 화장실로 가서 지혈을 했고그 후에 병원 가서 10	바늘	을 꿰맸다 하더라. 그 인터뷰 끝나고 앵커가 하는 말이 강기정의원의 말도 들어보려 했는데인터뷰	꿰매
board/agora1-2.txt:2176484:오른쪽 귀 위 머리를 방패로 찍혀 세	바늘	을 꿰매고 발로 가슴을 채여 몸과 마음에 모두 멍이 든 그였지만, 김 씨는 역시 '어머니'였다. 아들	꿰매
을 호소하고 있다. 한현호 회장은 머리가 찢어져 피가 흘러내렸으며,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다섯	바늘	을 꿰맸다. 몸싸움이 벌어지는 동안 현장에 투입된 전의경 60여 명은 반북단체 회원들의 대북전단	꿰매

[그림 3-1] 사태 단위사 ‘바늘’의 용례

검색한 용례에 포함된 노이즈(noise)를 제거하여 최종적으로 구한 용례의 개수는 다음과 같다.

단위사	용례 수(개)	단위사	용례 수(개)
걸음	54,715	번	48,479
끼	39,244	수	10,973
끼니	680	순	281
땀	2,758	순배	396
바늘	288	차례	142,849
바퀴	799	코	590
발	24,517	탕	1,349
발자국	467	통화	1,172
발짝	34,249	판	7,096
방	26,079	홰	50
배	48	획	6,497
		전체	403,576

[표 3-1] 각 사태 단위사별 용례의 개수

‘번’의 경우 등장하는 용례가 300만 건 이상으로 다른 단위사의 용례 수와 비교하는 것이 어려울 정도로 용례가 많았다. 따라서 검색된 용례 중 5만 건을 무작위 추출하여 노이즈를 제거한 후 연구를 진행했다. ‘번’을 제외한 단위사는 말뭉치에 등장한 모든 용례를 살폈다.

3.2. 사태 단위사와 동사의 공기 양상

3.2.1. 계량적 검토

본 연구에서는 사태 단위사와 동사가 가지는 공기 관계의 특수성을 계량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상대 엔트로피(relative entropy, Kullback-Leibler divergence) 개념을 활용하였다.

상대 엔트로피를 알아보기에 앞서, 상대 엔트로피가 기반을 두고 있는 정보 이론의 엔트로피(entropy)가 무엇인지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한다. 간단하게 엔트로피라고도 불리는 정보 엔트로피는 정보를 표현하는 데 필요한 최소 자원량이다. 우리가 사용하고 전달하는 정보에는 잉여성이 있다. 잉여성을 줄여 이 정보를 압축하면서도 오류 없이 전달하기 위해서는 가장 흔한 문자에 가장 적은 비트(bit)를 할당하고, 가장 드문 문자에 가장 많은 비트를 할당하여야 한다. 이러한 방식으로 해당 정보 내의 모든 문자에 비트를 할당하면, 그 비트의 양이 곧 해당 정보를 표현하는 데 필요한 자원량이 되는데 이것이 그 정보의 엔트로피다. 어떤 사건이 취할 수 있는 경우가 모두 동일한 발생 확률을 가지면 그 정보를 표현하는 자원량(엔트로피)이 많아야 하며, 이 엔트로피가 높을수록 해당 정보의 불확실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대표적인 엔트로피는 Shannon(1948)에서 창안한 섀넌 엔트로피(Shannon entropy)이다. 정보 X에 대해 출현할 수 있는 특정 값 x가 이산적이면서 그 확률이 $p(x)$일 때 섀넌 엔트로피 $H(X)$를 구하는 공식은 다음과 같다.

(27)

$$H(X) = -\sum_{x \in X} p(x) \log_2 p(x)$$

위 (27)의 공식에 대입하면, 앞면이 나올 확률과 뒷면이 나올 확률이 정확히 동일한 동전을 던지는 경우의 엔트로피는 1이다. 반면 앞면이 나올 확률이 $\frac{1}{4}$이고 뒷면이 나올 확률이 $\frac{3}{4}$인 찌그러진 동전을 던지는 사건의 엔트로피는 약 0.811이다. 즉, 각 경우의 수가 일어날 확률이 모두 같은 균등 분포(uniform distribution)를 이루는 사건일 때 엔트로피는 최대가 된다(Shannon 1948).

섀넌 엔트로피에 기반을 두는 상대 엔트로피(Kullback & Leibler 1951: 79)는 상이한 두 확률분포를 비교하기 위해 사용하는 통계량이다. 상대 엔트로피는 기준이 되는 확률분포에 대해, 비교하려는 확률분

포가 얼마나 큰 차이를 가지는지를 계량화한 척도다. 상대 엔트로피 값이 클수록 비교하려는 확률분포가 기준이 되는 확률분포로부터 큰 차이를 가지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산 변수 P에 대한 이산 변수 Q의 상대 엔트로피 $D_{KL}(P \parallel Q)$를 구하는 공식은 다음과 같다.

(28)

$$D_{KL}(P \parallel Q) = \sum_{i} P(i) \log \frac{P(i)}{Q(i)}$$

본 연구에서는 말뭉치 전체에서 등장하는 동사의 출현 확률분포를 기준으로 삼고 각 사태 단위사별 공기하는 동사의 출현 확률분포를 비교하고자 하므로 상대 엔트로피 값을 계산하였다. 먼저 본 연구의 대상으로 삼는 22개 사태 단위사와 공기하는 동사의 확률분포를 구하고, 전체 말뭉치에 등장하는 동사의 확률분포를 구하였다. 전체 말뭉치에 나타나는 동사 중 상위 20개의 출현 빈도 및 소수점 아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한 비율은 다음 표와 같다.

동사	빈도(회)	비율(%)	동사	빈도(회)	비율(%)
하-	51,566,639	6.09	알-	6,919,759	0.82
되-	27,323,388	3.23	밝히-	6,883,990	0.81
보-	17,468,468	2.06	지나-	6,628,390	0.78
대하-	16,675,590	1.97	오-	6,623,211	0.78
위하-	13,636,356	1.61	만들-	6,438,587	0.76
받-	12,939,381	1.53	나오-	6,295,994	0.74
가-	10,321,554	1.22	보이-	5,026,185	0.59
말하-	9,745,870	1.15	생각하-	4,393,961	0.52
따르-	8,302,576	0.98	주-	3,968,395	0.47
통하-	7,251,126	0.86	열리-	3,848,553	0.45

[표 3-2] 말뭉치에 나타나는 상위 20개 동사

이후 전체 말뭉치의 동사 확률분포를 준거 분포로 삼고, 22개 단위사와 공기하는 동사의 확률분포를 비교 대상으로 삼아 각각의 상대 엔트로피 값을 구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 표와 같다(상대 엔트로피 값은 소수점 아래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였다).

순번	단위사	상대 엔트로피	순번	단위사	상대 엔트로피
1	번	1.01	12	걸음	4.87
2	차례	1.67	13	발짝	4.92
3	통화	1.88	14	발자국	5.25
4	판	2.56	15	바퀴	5.72
5	수	3.10	16	순배	5.75
6	방	3.45	17	홰	6.55
7	끼	3.52	18	코	7.11
8	땀	3.86	19	배	7.37
9	탕	4.25	20	숟	7.43
10	끼니	4.47	21	획	8.04
11	발	4.55	22	바늘	10.85

[표 3-3] 각 사태 단위사별 공기 동사의 상대 엔트로피

어떤 단위사의 상대 엔트로피가 낮다는 것은 해당 단위사와 공기하는 동사들이 전체 말뭉치의 동사들과 유사한 분포를 보임을 의미한다. 반대로, 상대 엔트로피가 높다는 것은 해당 단위사와 공기하는 동사들이 전체 말뭉치의 동사들과 이질적임을 의미한다. 표 3-3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22개 사태 단위사 중 '번'과 공기한 동사들이 전체 말뭉치에 출현한 동사들과 가장 유사한 분포를 보였다. 반면 전체 말뭉치와 가장 이질적인 동사의 출현 분포를 보인 사태 단위사는 '바늘'이다.

이를 통해 여러 사태 단위사 중 어떤 것이 동사와 무관하게 범용적으로 쓰이는지, 어떤 것이 특정 동사와만 집중적으로 쓰이는지 정도성의 관점에서 판단할 수 있겠다.

3.2.2. 사태 단위사와 공기하는 동사

이 장에서는 22개의 사태 단위사와 공기하는 동사들을 상대 엔트로피가 낮은 순서로 살펴본다. 즉 '번, 차례, 통화, 판, 수, 방, 끼, 땀, 탕, 끼니, 발, 걸음, 발짝, 발자국, 바퀴, 순배, 홰, 코, 배, 순, 획, 바늘'의 순서대로 함께 나타나는 동사와 그 용례를 본다.

각 단위사별로 고빈도로 공기하는 동사와 그 빈도 및 비율을 표로 정리하여 제시하는데, 본 연구에서는 각 단위사의 용례 중에서 출현하는 비율이 2% 이상인 동사를 표로 정리하여 소개한다.

[1] 번

22개 사태 단위사 중, 공기하는 동사의 분포가 전체 말뭉치에 나타나는 동사의 분포가 가장 유사한 단위사는 '번'이었다. 말뭉치에서 사태 단위사 '번'이 검색되는 용례가 300만 개 이상으로 매우 많아, 임의로 50,000개 문장을 추출하고 이들 중에 있는 노이즈를 제거하여 총 48,479개의 문장을 분석하였다. 48,479개의 용례에서 '번'은 2,895개의 동사와 함께 나타났다. '번'과 함께 출현하는 빈도가 2% 이상인 동사의 빈도와 비율은 다음과 같다.

동사	빈도(회)	비율(%)
하-	5,297	10.93
보-	2,900	5.98
가-	1,412	2.91
보이-	1,106	2.28

[표 3-4] '번'과 공기하는 고빈도 동사

'번'과 가장 자주 공기하는 동사는 '하-'로, 전체 용례 중 약 11%의 비율을 차지하였다. 그 뒤를 동사 '보-'가 약 6%, '가-'가 약 3%, '보이-'가 약 2%의 비율을 차지하며 뒤따랐다. 그리고 그 이하의 동사들

은 전체 용례 중 2% 미만의 비율로 '번'과 공기하며 나타났다.

'번'이 '하-', '보-', '가-', '보이-'와 공기하는 용례는 다음과 같다.

(29) ㄱ. 우승을 한 번 해야 재계약이 보장된다.
ㄴ. 짧은 영상이니까 꼭 한 번 보세요.
ㄷ. 청춘은 한 번 가면 다시 오지 않는다.
ㄹ. 가방 내부를 한 번 보여 드릴게요.

(29ㄱ)에서 수량 표현 '한 번'은 후행하는 서술어 '해야'가 나타내는 사태의 횟수가 1임을 표시한다. (29ㄴ, ㄷ, ㄹ)에서도 공통적으로 수량 표현 '한 번'은 각각 후행하는 서술어 '보세요, 가면, 보여'가 나타내는 사태의 횟수가 1임을 표시한다.

'하-'가 '보-' 이하의 다른 동사들에 비해 약 11%라는 높은 비율로 '번'과 공기하므로, 다른 동사에 비해 상당히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언뜻 보일 수 있다. 그러나 비교 대상인 말뭉치 전체 동사 분포에서 '하-'는 6.09%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과, '관하-', '대하-', '위하-' 등 사태 단위사로 횟수를 세기 어려운 사태를 표현하는 동사가 있음을 고려하면 '번'과 '하-'의 공기를 특별하게 공고한 관계로 보기는 어렵다.

한편, 사태 단위사와 '하-'의 출현 빈도는 '하-'의 논항 실현 양상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수치다. 다음을 보자.

(30) ㄱ. 우승을 한 번 해야 재계약이 보장된다.
ㄱ′. 한 번 우승해야 재계약이 보장된다.
ㄴ. 그는 심호흡을 한 번 하고 말안장에 올랐다.
ㄴ′. 그는 한 번 심호흡하고 말안장에 올랐다.
ㄷ. 저는 위원장을 두 번 했습니다.
ㄷ′. *저는 두 번 위원장했습니다.

(30ㄱ)은 위 (29ㄱ)과 동일한 문장이고, (30ㄱ′)은 (30ㄱ)의 '하-'

의 논항 ‘우승을’에서 명사 ‘우승’이 다시 ‘하-’와 결합하여 술어로 쓰인 문장이다. 즉 (29ㄱ)에서 술어가 바뀌고 논항이 줄어 (30ㄱ′)이 된 것이다. 이를 역으로 보면, 본래 사건 명사와 기능동사 ‘하-’의 결합이던 ‘우승하-’에서 사건 명사 ‘우승’이 분리되어 술어는 ‘하-’가 되고 사건 명사가 그 논항으로 기능하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만일 말뭉치에서 해당 문장이 (29ㄱ′)처럼 쓰였을 경우, 이 문장은 ‘하-’의 용례가 아닌 ‘우승하-’의 용례로 수집되었을 것이다. 수량 표현에 의해 논항 ‘심호흡을’과 동사 ‘하-’가 분리된 문장 (29ㄴ)도, 같은 원리로 (29ㄴ′)처럼 쓰였다면 ‘심호흡하-’의 용례가 되었을 것이다. 다만 동사 ‘하-’의 모든 용례가 이러한 것은 아니며, (29ㄷ)처럼 논항이 사건 명사가 아닌 경우 원래의 술어는 ‘하-’이므로 이 문장이 ‘번’과 ‘하-’의 용례라는 점에 이견이 없다.

[2] 차례

말뭉치에서 수량을 나타내는 관형사와 ‘차례’가 공기하는 용례를 검색한 결과, 전체 142,849개의 문장에서 3,674개의 동사가 ‘차례’와 공기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가장 높은 빈도로 공기하는 동사는 ‘하다’(6,877회)로 나타났다. 두 번째로 높은 빈도로 공기하는 동사는 ‘열리다’(5,766회)였다. 검색된 동사 중 2% 이상의 출현 비율을 보이는 동사는 다음 표 3-5와 같다.

동사	빈도(회)	비율(%)
하-	6,877	4.81
열리-	5,766	4.04
만나-	5,012	3.51
받-	4,512	3.16

[표 3-5] ‘차례’와 공기하는 고빈도 동사

다음 (31)은 ‘차례’와 가장 높은 빈도로 공기하는 동사 ‘하-’, ‘열리-’, ‘만나-’, ‘받-’의 용례다.

(31) ㄱ. 세 차례 실험을 하려고 준비했습니다.
ㄴ. 회의가 4년 동안 단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다.
ㄷ. 행정관이 피해자를 두 차례 만나 회유한 것으로 확인됐다.
ㄹ. 여성 과학자로는 유일하게 풀브라이트상을 세 차례 받았다.

(31ㄱ)에 쓰인 수량 표현 '세 차례'는 후행하는 서술어 '하려고'가 나타내는 사태의 횟수가 3임을 표시한다. (31ㄴ)에 쓰인 수량 표현 '한 차례'는 후행하는 서술어 '열리지'가 나타내는 사태의 횟수가 1임을 표시한다. (31ㄷ)의 '두 차례'는 후행하는 서술어 '만나'가 나타내는 사태의 횟수가 2임을 표시하고, (31ㄹ)의 '세 차례'는 서술어 '받았다'가 나타내는 사태의 횟수가 3임을 표시하는 것이다.

[3] 통화

말뭉치에서 사태 단위사 '통화'가 사용된 용례는 총 1,172개가 발견되었으며, 이들 문장에서 '통화'와 공기하는 동사는 총 45개였다. 그 중 '통화'와 2% 이상의 비율로 함께 나타난 동사는 다음과 같다.

동사	빈도(회)	비율(%)
하-	809	69.03
받-	99	8.45
쓰-	54	4.61
걸-	46	3.92
넣-	26	2.22

[표 3-6] '통화'와 공기하는 고빈도 동사

아래 (32)는 '통화'와 '하-'의 공기 용례 일부다. (32)의 각 문장에 쓰인 수량 표현 '한 통화'는 후행하는 동사 '하-'가 나타내는 사태의 횟수가 1임을 표시한다.

(32) ㄱ. 그냥 문의 메일만 보내지 마시고 전화 한 통화 해 보세요.
ㄴ. 결국 공중전화 한 통화 하는 데 100원을 쓰게 되어 씁쓸한 마음으로 나올 때가 많다.
ㄷ. 밴쿠버로 한 통화를 했습니다.
ㄹ. 한 통화만 더 해 볼게요.

말뭉치에서 '통화'와 가장 빈번하게 공기한 동사는 '하-'로, 약 69%의 비율을 차지했다. '통화'와 공기하는 동사 중에서 '하-'가 가장 높은 빈도로 나타나는 점은 앞서 확인한 '번'과 공통적이지만, '번'과 '하-'의 공기와 달리 '통화'와 '하-'의 공기는 주목할 만하다. 다른 단위사에 비해 '통화'와 '하-'의 공기 비율이 높은 이유로 동사 '통화하-'가 존재하는 점을 들 수 있다. 단위사와 '하-'가 결합하여 하나의 동사로 쓰이는 경우는 22개 단위사 중 '통화'가 유일하다. 수 관형사와 '통화하-'가 직접 함께 나타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위 (32)의 용례는 모두 수 관형사, 단위사 '통화', 동사 '하-'가 직접 결합한 것으로 분석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명사 '전화'나 단위사 '통화' 뒤에 가장 보편적으로 쓰일 만한 동사 '걸-'보다 '하-'가 압도적으로 높은 빈도로 쓰이는 현상은 동사 '통화하-'가 존재하는 데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하-' 외에, '통화'와 높은 비율로 공기하는 동사로 '받-', '쓰-', '걸-', '넣-'이 있었다. 이들의 용례는 다음과 같다.

(33) ㄱ. 오늘 내가 전화를 한 통화 받았다.
ㄴ. 전화 한 통화만 써도 될까요?
ㄷ. 담당 검사한테 전화 한 통화 걸어줬으면 좋았을 것을.
ㄹ. 그 회사에 청탁 전화 한 통화 넣어볼까?

(33)의 각 문장에 쓰인 수량 표현 '한 통화'는 후행하는 서술어 '받았다', '써도', '걸어', '넣어'가 나타내는 사태의 횟수가 1임을 표시한다.

[4] 판

말뭉치에서 사태 단위사 '판'의 용례는 7,096건 검색되었으며, 동사 920개가 '판'과 함께 사용되었다. 이 가운데 동사 '하-'가 '판'과 공기하는 용례가 957건 발견되었으며, '이기-'는 761건, '두-'는 394건, '따-'는 202건, '벌이-'는 171건 발견되어 '판'과 가장 많이 공기하는 동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판'과 공기하는 빈도가 전체 용례 수의 2% 이상인 동사의 출현 빈도와 비율은 다음 표와 같다.

동사	빈도(회)	비율(%)
하-	957	13.49
이기-	761	10.72
두-	394	5.55
따-	202	2.85
벌이-	171	2.41

[표 3-7] '판'과 공기하는 고빈도 동사

'번'과 마찬가지로 '판'과 공기하는 동사 중 '하-'가 차지하는 비율이 10%을 훌쩍 넘겨 말뭉치 내 동사 중 '하-'가 차지하는 비율(약 6%)에 비해 높게 나타났지만, 횟수를 세기 어려운 사태를 나타내는 동사들이 제외되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특별히 주목할 만큼 큰 차이를 보이는 수치는 아닌 것으로 여겨진다.

사태 단위사 '판'과 위의 고빈도 동사가 함께 나타나는 용례는 다음과 같다.

(34) ㄱ. 지구력이 좋아 하루에 5~6판씩 해도 지친 기색이 없다.
ㄴ. 한국은 한 판만 더 이겼어도 우승 상금을 받을 수 있었다.
ㄷ. 알파고는 하루에 바둑을 3만 판씩 두었다고 한다.
ㄹ. 큰 기술로 두 판을 내리 따 가볍게 승리를 챙겼다.
ㅁ. 축구광 친구들이 한 자리에 모여 축구 한 판을 벌인다.

(34ㄱ)에 쓰인 수량 표현 '5~6판'은 후행하는 서술어 '해도'가 나타내는 사태의 횟수가 5에서 6 사이임을 나타낸다. (34ㄴ, ㅁ)에 쓰인 '한 판'은 후행하는 서술어 '이겼어도', '벌인다'가 나타내는 사태의 횟수가 1임을 표시한다. (34ㄷ)의 '(바둑을) 3만 판'은 서술어 '두었다고'가 나타내는 사태의 횟수가 30000임을 표시하고, (34ㄹ)의 '두 판'은 서술어 '따'가 나타내는 사태의 횟수가 2임을 표시한다.

[5] 수

말뭉치에서 사태 단위사 '수'가 쓰인 용례는 총 10,973건 검색되었고, 1,009개의 동사가 '수'와 함께 사용되었다. '배우-'는 '수'와 2,155회 함께 나타나며 20%에 가까운 높은 비율을 차지했고, '가르치-'는 1,022회 출현하여 그 비율이 9%를 넘었다. '수'와 2%를 넘는 비율로 공기하는 고빈도 동사는 다음과 같다.

동사	빈도(회)	비율(%)
배우-	2,155	19.64
가르치-	1,022	9.31
접-	586	5.34
두-	570	5.19
앞서-	248	2.26

[표 3-8] '수'와 공기하는 고빈도 동사

'수'와 공기하는 고빈도 5개 동사의 용례는 다음과 같다.

(35) ㄱ. 아버지의 고민 상담을 통해 한 수 배워가는 느낌이다.
ㄴ. 형이 아우에게 한 수를 가르쳐 준 한 판이었다.
ㄷ. 한국 발레는 이류로 여기고 으레 한 수 접고 봤는데 놀랍다.
ㄷ′. 이 배우는 레슬러도 한 수 접고 들어갈 만한 덩치다.
ㄹ. 바둑은 교대로 서로 한 수씩 두는 게임이다.

ㅁ. 타구의 비거리는 떨어져도, 정확도에서 한 수 앞선다.

(35)의 각 문장에서 수량 표현 '한 수'는 후행하는 서술어 '배워', '가르쳐', '접고', '두는', '앞선다'가 나타내는 사태의 횟수가 1임을 표시한다.

그런데 (35ㄱ~ㄷ, ㅁ)와 (35ㄹ)에서 '한 수'는 사뭇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다. (35ㄹ)에서 '한 수'는 '두 수', '여러 수' 등 다른 값을 가지는 수 관형사로 바꾸어 사용될 수 있지만 (35ㄱ~ㄷ, ㅁ)의 '한 수'는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 다른 수 관형사로 바꾸면 그 의미를 잃어버린다. 특히 동사 '접-'이 사용된 '한 수 접-'은 관용 표현으로, 수 관형사 '한' 외에 '두 수 접다'나 '여러 수 접다'처럼 다른 값을 가지는 수 관형사는 사용되지 않는다.

또한 '한 수 접다'에 특이한 의미 변질이 일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본래 '한 수 접다'는 (35ㄷ)에서와 같이 대상을 얕잡아 보는 뜻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말뭉치에 나타난 '한 수 접다'의 대다수 용례에서는 (35ㄷ′)처럼 '양보하다, 숙이다' 등의 뜻으로 변질되어 사용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6] 방

말뭉치에서 사태 단위사 '방'이 쓰인 용례는 총 26,079건이며, 동사 1,336개가 '방'과 함께 쓰였다. '방'과 높은 빈도로 함께 나타난 동사는 '날리-', '맞-', '먹이-', '쏘-', '터뜨리-', '먹-', '얻어맞-' 등이고, 그 중 동사 '날리-'와 13%에 가까운 비율로 가장 많이 공기하였다. '방'과 2% 이상의 비율로 공기하는 동사는 다음과 같다.

동사	빈도(회)	비율(%)
날리-	3,322	12.74
맞-	2,415	9.26
먹이-	1,639	6.28
쏘-	1,450	5.56
터뜨리-	1,412	5.41
먹-	943	3.62
얻어맞-	591	2.27

[표 3-9] '방'과 공기하는 고빈도 동사

다음 (36)은 각 동사가 '방'과 함께 출현한 용례다.

(36) ㄱ. 남자에게 다짜고자 주먹 한 방 날리자 놀란 구경꾼들.
ㄴ. 한 방 맞은 것처럼 가슴이 철렁하며 황당하더라구요.
ㄷ. 화가 난 직원은 사장에게 한 방 먹이고 회사를 그만두었다.
ㄹ. 마침내 승리에 보탬이 되는 결정적인 한 방을 쏘았다.
ㅁ. 그는 수많은 국제대회에서 영양가 있는 한 방을 터뜨렸다.
ㅂ. 불안불안하더니 한 방 먹네요.
ㅅ. 심적으로 한 방 얻어맞은 느낌이 들었다.

(36)의 각 문장에서 수량 표현 '한 방'은 후행하는 서술어 '날리자', '맞은', '먹이고', '쏘았다', '터뜨렸다', '먹네요', '얻어맞은'이 나타내는 사태의 횟수가 1임을 표시한다.

[7] 끼

말뭉치에서 사태 단위사 '끼'가 등장한 용례는 총 39,244건이며, 총 868개의 동사가 공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 가장 높은 빈도로 '끼'와 공기하는 동사는 '먹-'으로, 총 16,358회 출현하여 약 42%의 비율을 차지했다. '끼'와 2% 이상의 비율로 공기하는 동사의 빈도와 비율은 다음과 같다.

동사	빈도(회)	비율(%)
먹-	16,358	41.68
하-	2,621	6.68
해결하-	2,002	5.10
때우-	1,682	4.29
즐기-	1,291	3.29
굶-	1,182	3.01
챙기-	1,083	2.76
먹이-	976	2.49

[표 3-10] '끼'와 공기하는 고빈도 동사

'끼'는 수 관형사를 필요로 하지 않는 자립명사로 자주 쓰이며, 이는 뒤에 살펴볼 '끼니'와 공유하는 특징이다. 그런데 '끼'의 많은 용례에서 단위사의 용법을 가지고 수 관형사와 함께 나타나기도 한다. '끼'가 사태 단위사로 쓰인 용례는 다음과 같다.

(37) ㄱ. 하루에 여섯 끼를 먹을 수는 없으니까요.
ㄴ. 화이트데이라서 밥이나 한 끼 하려고 했어요.
ㄷ. 허전하지 않게 저녁 한 끼를 해결하기엔 안성맞춤입니다.
ㄹ. 간단하게 한 끼 때울 수 있는 가정식이었습니다.
ㅁ. 토마토 카레로 기분 좋은 한 끼를 즐겨 보세요.
ㅂ. 고양이가 한 끼 굶었다고 병원에 데리고 갔다.
ㅅ. 하루 세 끼를 챙겨 주는 어머니.
ㅇ. 아이들에게 제대로 된 밥 한 끼 먹이자.

(37ㄱ)에 쓰인 수량 표현 '여섯 끼'는 후행하는 서술어 '먹을'이 나타내는 사태의 횟수가 6임을 나타낸다. (37ㄴ, ㄷ, ㄹ, ㅁ, ㅂ, ㅇ)에 쓰인 '한 끼'는 후행하는 서술어 '하려고', '해결하기엔', '때울', '즐겨', '굶었다고', '먹이자'가 나타내는 사태의 횟수가 1임을 표시한다. (37ㅅ)의

‘세 끼’는 서술어 ‘챙겨’가 나타내는 사태의 횟수가 3임을 표시한다.

[8] 땀

말뭉치에서 사태 단위사 ‘땀’이 쓰인 용례는 모두 2,758개이며, ‘땀’과 공기하는 동사는 모두 349개로 나타났다. 그 중 ‘땀’과 높은 빈도로 공기하는 동사는 ‘만들-’, ‘뜨-’, ‘수놓-’, ‘하-’, ‘바느질하-’, ‘꿰매-’, ‘공들이-’, ‘새기-’ 등이 있다.

동사	빈도(회)	비율(%)
만들-	423	15.34%
뜨-	251	9.10%
수놓-	218	7.90%
하-	184	6.67%
바느질하-	138	5.00%
꿰매-	109	3.95%
공들이-	104	3.77%
새기-	56	2.03%

[표 3-11] ‘땀’과 공기하는 고빈도 동사

(38) ㄱ. 맞춤 넥타이만 50년 한 장인이 한 땀 한 땀 만든 넥타이야.
ㄴ. 실매듭을 짓지 않고 두 땀 정도 떠 주어 준비하시면 됩니다.
ㄷ. 우리 엄마가 날 가졌을 때 정성껏 한 땀 한 땀 수놓아 준 거야!
ㄹ. 엄마는 여전히 한 땀 한 땀 바느질을 하고 있었다.
ㅁ. 직접 한 땀 한 땀 바느질하며 따뜻한 이불을 만들었다.
ㅂ. 이 신발은 제가 한 땀 한 땀 꿰맨 거라 터질 일도 없고요.
ㅅ. 패션피플일수록 한 땀 한 땀 공들여 만든 옷을 신뢰한다.
ㅇ. 장인이 한 땀 한 땀 새긴 전통 문양이다.

(38ㄱ, ㄷ~ㅇ)에 쓰인 수량 표현 '한 땀'은 후행하는 서술어 '만든', '수놓아', '하고', '바느질하며', '꿰맨', '공들여', '새긴'이 나타내는 사태의 횟수가 1임을 나타낸다. (38ㄴ)에 쓰인 '두 땀'은 후행하는 서술어 '떠'가 나타내는 사태의 횟수가 2임을 표시한다.

사태 단위사 '땀'이 검색된 용례 중에서 '한 땀 한 땀'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용례가 2,397건으로 전체의 약 87%에 달한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먼저 《표준국어대사전》에 기술된 '땀'의 뜻풀이를 보자.

(39) 땀2 「명사」
1. 바느질할 때 실을 꿴 바늘로 한 번 뜸. 또는 그런 자국.
예 땀이 촘촘하다.
2. ((수량을 나타내는 말 뒤에 쓰여)) 실을 꿴 바늘로 한 번 뜬 자국을 세는 단위.
예 바느질을 한 땀 한 땀 정성 들여 하다.

(39)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땀'은 자립명사의 뜻(1)으로나 단위사의 뜻(2)으로나 '바늘로 뜨는 행위', 즉 '바느질'과 무관할 수 없다. 그리고 표 3-12에 실린, '땀'과 고빈도로 공기하는 동사들은 모두 크고 작게 바느질과 관련되어 있다. 그런데 '그리다', '새기다', '쓰다' 등 바느질과의 관련성이 매우 적은 행위를 나타내는 동사가 수량 표현의 반복 구성 '한 땀 한 땀'과 적지 않은 빈도로 공기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다음은 이들의 용례다.

(40) ㄱ. 한 땀 한 땀 다 그려서 만들었습니다.
ㄴ. 이 소설은 한 여인이 사막같은 삶을 한 땀 한 땀 새겨나가는 내용이다.
ㄷ. 컴퓨터로 작업한 글은 어색해 평생을 원고지에 한 땀 한 땀 썼다고 한다.

이들 용례에 쓰인 동사들은 비록 바느질에 관련되지 않지만, 유·무형의 무언가를 생산하는 행위를 나타낸다는 공통점을 가진다. 이를 통해 '땀'이 포함된 수량 표현은 더 이상 바느질에 관한 사태에 국한되어 쓰이지 않고, 인간이 무언가를 만드는 사태 전반에 쓰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9] 탕

동사	빈도(회)	비율(%)
뛰-	623	64.29
하-	241	24.87
노리-	22	2.27

[표 3-12] '탕'과 공기하는 고빈도 동사

말뭉치에서 사태 단위사 '탕'이 쓰인 용례는 총 1,349건 검색되었으며, 동사 217개가 '탕'과 함께 나타났다. '탕'과 가장 빈번하게 공기하는 동사는 '뛰-'로, '탕'의 용례 중 623개의 용례에서 발견되어 약 65%의 비율을 차지하였다. 그 뒤로 전체 말뭉치에서 가장 높은 출현 빈도를 차지하는 '하-'가 241개 용례에서 쓰여 약 25%의 비율을 차지하며 따랐다. '노리-'는 22회 나타나 2% 정도의 출현 비율을 보였다. 이들 뒤를 따르는 동사들은 10회 이하의 매우 적은 출현 빈도를 보였다.

'탕'과 동사 '뛰-', '하-', '노리-'가 함께 나타난 용례는 다음 (41)과 같다. 각 문장에서 수량 표현 '한 탕'은 후행하는 서술어 '뛰고', '하려고', '노린다'가 나타내는 사태의 횟수가 1임을 표시한다.

(41) ㄱ. 먼저 한 탕 뛰고 대기하는 기사들이 모여 담배를 피운다.
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크게 한 탕 하려고 한다.
ㄷ. 인생 역전 대박을 이뤄줄 마지막 한 탕을 노린다.

《표준국어대사전》에서 풀이한 단위사 '탕'의 뜻은 '무엇을 실어 나

르거나 일정한 곳까지 다녀오는 횟수를 세는 단위'와 '어떤 일을 하는 횟수를 나타내는 단위'로 나뉜다. (41ㄱ)은 전자의 의미를 가지는 단위사로 쓰였고, (41ㄴ, ㄷ)은 후자의 의미를 가지는 단위사로 쓰였다.

[10] 끼니

말뭉치에서 사태 단위사 '끼니'가 등장한 용례는 총 680건이며 65개의 동사와 함께 나타났다. 그 중 가장 높은 빈도로 '끼니'와 함께 나타나는 동사는 '먹-'으로, 약 39%의 비율을 차지한다. 그 밖에 동사 '때우-', '해결하-', '챙기-', '굶-' 등이 그 뒤를 따라 '끼니'와 공기한다. 다음은 '끼니'와 고빈도로 공기하는 동사의 빈도와 비율이다.

동사	빈도(회)	비율(%)
먹-	269	38.65
때우-	66	9.48
해결하-	40	5.75
챙기-	39	5.60
굶-	34	4.89
차리-	25	3.59
거르-	21	3.02
먹이-	18	2.59
하-	15	2.16
얻어먹-	14	2.01

[표 3-13] '끼니'와 공기하는 고빈도 동사

(42) ㄱ. 우리 집에서는 하루 두 끼니만 먹어요.
ㄴ. 형은 밀감 한 개로 여섯 끼니를 때웠다.
ㄷ. 그 돈이면 편의점에서 일곱 끼니를 해결할 수 있다.
ㄹ. 오늘은 기분 좋게 산책하고 세 끼니나 챙겨 먹었다.
ㅁ. 한 끼니만 굶어도 배고프다고 느낀다.
ㅂ. 어떻게 밥을 날마다 세 끼니나 차릴 수 있을까 놀라웠다.

ㅅ. 이제는 한 끼니만 걸러도 예전처럼 힘이 나지 않아요.
ㅇ. 아이가 한 끼니를 조금만 먹더라도 두 끼니를 먹이세요.
ㅈ. 두 끼니 밥을 하려면 이만저만 품이 들지 않는다.
ㅊ. 노래 한 자락 선물하면서, 밥 한 끼니 얻어먹습니다.

(42ㄱ, ㅇ)에서 수량 표현 '두 끼니'는 후행하는 서술어 '먹어요'와 '먹이세요'가 나타내는 사태의 횟수가 2임을 표시한다. (42ㄴ)의 '여섯 끼니'는 서술어 '때웠다'가 나타내는 사태의 횟수가 6임을 표시하고, (42ㄷ)의 '일곱 끼니'는 서술어 '해결할'이 나타내는 사태의 횟수가 7임을 표시한다. (42ㄹ, ㅂ)의 '세 끼니'는 후행하는 서술어 '챙겨'와 '차릴'이 나타내는 사태의 횟수가 3임을 표시한다. (42ㅁ, ㅅ)의 '한 끼니'는 후행하는 서술어 '굶어도'와 '걸러도'가 나타내는 사태의 횟수가 1임을 보인다.

한편 (42ㅂ, ㅈ, ㅊ)에서는 핵 명사 '밥'이 명시적으로 쓰여 수량 표현 '밥(을) 세 끼니', '두 끼니 밥', '밥 한 끼니' 등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명사의 명시적 사용에 관계 없이 모두 후행하는 서술어 '차릴', '하려면', '얻어먹습니다'가 나타내는 사태의 횟수가 각각 3, 2, 1임을 표시한다.

[11] 발

말뭉치에서 단위사 '발'이 쓰인 용례는 '총알, 포탄, 화살 따위를 세는 단위'라는 뜻을 가지는 물질 단위사 '발'과, '걸음을 세는 단위'인 사태 단위사 '발'의 용례가 섞여 있었다. 그 중 사태 단위사 '발'이 쓰인 용례는 24,517건이며, 동사 813개가 함께 쓰였다. 다음은 사태 단위사 '발'과 2% 이상의 비율로 공기하는 7개 동사의 출현 빈도와 비율이다.

동사	빈도(회)	비율(%)
물러서-	6,728	27.44
앞서-	2,579	10.52
물러나-	2,247	9.17
양보하-	1,021	4.16
뛰-	685	2.79
떨어지-	658	2.68
가-	595	2.43

[표 3-14] '발'과 공기하는 고빈도 동사

사태 단위사 '발'과 가장 높은 빈도로 함께 나타난 동사는 '물러서-'로, 6,728회 출현하여 약 27%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그 뒤를 '앞서-', '물러나-', '양보하-', '뛰-', '떨어지-', '가-' 등이 따르고 있다. '발'과 공기하는 동사 중에는 '물리적 이동'의 의미를 가지는 동사가 많이 출현하는데, '물러서-', '앞서-', '물러나-' 등이 이에 해당한다. '발'과 이들 동사의 용례는 다음과 같다.

(43) ㄱ. 먼 산도 한 발 두 발 물러서 바라보자.
ㄴ. 치열한 2위 싸움에서 한 발 앞서게 됐다.
ㄷ. 현장에서 한 발 물러나 강연 활동 등을 주로 해 왔다.
ㄹ. 하지만 그는 결국 한 발 양보했다.
ㅁ. 더 많은 유권자와 친화력을 쌓기 위해 한 발 더 뛰고 있습니다.
ㅅ. 그녀에게 한 발 떨어져서 스스로 해결하게 놔둬야 한다.
ㅇ. 뒤로 세 발 네 발 가는 건 너무나 쉽죠.

(43ㄱ)에 쓰인 수량 표현 '한 발'과 '두 발'은 후행하는 서술어 '물러서'가 나타내는 사태의 횟수가 각각 1과 2임을 나타낸다. (43ㄴ~ㅂ)에 쓰인 '한 발'은 후행하는 서술어 '앞서게', '물러나', '양보했다', '뛰고', '떨어져서'가 나타내는 사태의 횟수가 1임을 표시한다. (43ㅇ)의 수량 표

현 ‘세 발’과 ‘네 발’은 서술어 ‘가는’이 나타내는 사태의 횟수가 각각 3과 4임을 표시한다.

[12] 걸음

말뭉치에서 사태 단위사 ‘걸음’이 등장한 용례는 총 54,715건이며, 906개의 동사와 함께 나타난다. 그 중 가장 높은 빈도로 ‘걸음’과 함께 나타난 동사는 ‘나아가-’로, 16,371건(약 30%)의 용례에서 등장하였다. 그 밖에도 물리적 이동의 의미를 가지는 동사 ‘다가서-’, ‘다가가-’, ‘물러서-’, ‘내딛-’, ‘걷-’, ‘물러나-’, ‘나가-’, ‘내디디-’, ‘가-’ 등이 ‘걸음’과 높은 빈도로 등장하였다. ‘걸음’이 물리적 이동의 의미를 가지는 동사들과 자주 공기하는 것은 앞서 살핀 ‘발’과 공유하는 특징이다. 다음은 ‘걸음’과 높은 빈도로 나타나는 동사의 빈도와 비율이다.

동사	빈도(회)	비율(%)
나아가-	16,371	29.92
다가서-	3,513	6.42
다가가-	3,350	6.12
물러서-	3,340	6.10
내딛-	2,405	4.40
걷-	2,313	4.23
물러나-	2,206	4.03
나가-	2,061	3.77
내디디-	1,314	2.40
가-	1,172	2.14

[표 3-15] ‘걸음’과 공기하는 고빈도 동사

다음은 ‘걸음’과 각 동사가 함께 나타난 용례다.

(44) ㄱ. 민주주의가 한 걸음 나아가는 계기가 될 것이다.
ㄴ. 완전 자율주행에 한 걸음 더 다가선 기술이 대거 적용된다.

ㄷ. 정상을 향해 한 걸음 두 걸음 다가간다.
ㄹ. 독자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서서 인생을 성찰해도 좋다.
ㅁ. 새로운 세상을 향해 한 걸음 내딛어 보는 것은 어떨까.
ㅂ. 사방을 차례로 둘러본 후 북쪽을 향해 일곱 걸음을 걸었다.
ㅅ. 화가 날 때는 뒤로 세 걸음 물러나 생각하리!
ㅇ. 평화 통일에 한 걸음 더 나갈 수 있다고 생각했고요.
ㅈ. 이번 우승으로 한 걸음을 내디뎠다.
ㅊ. 정상화를 위해 한 걸음, 한 걸음 가고 있다.

(44ㄱ, ㄴ, ㄹ, ㅁ, ㅇ~ㅊ)에 쓰인 수량 표현 '한 걸음'은 후행하는 서술어 '나아가는', '다가선', '물러서서', '내딛어', '나갈'이 나타내는 사태의 횟수가 1임을 나타낸다. (44ㄷ)에 쓰인 수량 표현 '한 걸음'과 '두 걸음'은 후행하는 서술어 '다가간다'가 나타내는 사태의 횟수가 각각 1과 2임을 표시한다. (44ㅂ)의 '일곱 걸음'은 서술어 '걸었다'가 나타내는 사태의 횟수가 7임을 표시하고, (44ㅅ)의 '세 걸음'은 서술어 '물러나'가 나타내는 사태의 횟수가 3임을 표시한다.

[13] 발짝

말뭉치에서 사태 단위사 '발짝'은 523개 동사와 함께 34,249개의 용례에서 나타난다. '발짝'이 고빈도로 공기하는 동사의 빈도와 비율은 다음과 같다.

동사	빈도(회)	비율(%)
물러서-	4,813	14.05
나아가-	4,205	12.28
다가서-	3,703	10.81
나가-	3,199	9.34
물러나-	2,523	7.37
다가가-	2,060	6.01
움직이-	1,546	4.51
떨어지-	1,238	3.61
양보하-	796	2.32
벗어나-	727	2.12
내딛-	688	2.01

[표 3-16] '발짝'과 공기하는 고빈도 동사

이 중 물리적 이동의 의미를 가지는 동사 '물러서-, 나아가-, 다가서-, 나가-, 물러나-, 양보하-' 등이 가장 높은 빈도로 '발짝'과 공기하고, 추상적 이동의 의미를 가지는 동사 '발전하-, 성장하-' 등도 일부 용례에서 나타났다. 이 점에서 앞서 살펴본 사태 단위사 '걸음, 발'과 비슷한 양상을 보인다. 사태 단위사 '발짝'이 쓰인 용례는 다음과 같다.

(45) ㄱ. 물불 안 가리고 덤비던 때와 달리 한 발짝 물러서 있다.
ㄴ. 2년 연속 우승을 향해 한 발짝 더 나아갔다.
ㄷ. 마침내 올림픽 무대에 한 발짝 다가섰습니다.
ㄹ. 수사는 올바른 방향으로 한 발짝 한 발짝 나가고 있다.
ㅁ. 한 발짝 뒤로 물러나서 보면 더 넓게 보이는 법이다.
ㅂ. 꿈에 한 발짝 더 다가간 것 같다.
ㅅ. 한 발짝 더 움직이면 쏴 버릴 거야.
ㅇ. 자신의 삶에서 한 발짝 떨어져보니 더 중요한 목표가 보였다.
ㅈ. 안보 문제는 양측이 한 발짝도 양보하지 않았다.

ㅊ. 우려했던 상황에서 일단 한 발짝 벗어났다.
ㅋ. 그는 왼발을 먼저 한 발짝 내딛었다.

(45)의 각 문장에서 수량 표현 '한 발짝'은 후행하는 서술어 '물러서', '나아갔다', '다가섰습니다', '나가고', '물러나서', '다가간', '움직이면', '떨어져', '양보하지', '벗어났다', '내딛었다'가 나타내는 사태의 횟수가 1임을 표시한다.

[14] 발자국

말뭉치에서 '발자국'은 467개의 용례에서 81개 동사와 함께 나타났다. 이는 '발자국'이 자립명사로 쓰인 용례가 아니라, '발자국' 앞에 수관형사 등 수량을 나타내는 관형사가 있는 용례만을 검색한 것이다. 다음은 사태 단위사 '발자국'과 2% 이상의 비율로 공기하는 동사들의 빈도와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동사	빈도(회)	비율(%)
나아가-	42	8.99
내딛-	40	8.57
다가가-	32	6.85
다가서-	30	6.42
걷-	29	6.21
물러서-	20	4.28
다가오-	19	4.07
옮기-	19	4.07
물러나-	18	3.85
걸어가-	15	3.21
양보하-	14	3.00
움직이-	14	3.00
전진하-	14	3.00
내디디-	13	2.78
떼-	13	2.78

[표 3-17] '발자국'과 공기하는 고빈도 동사

사태 단위사 '발자국'과 함께 나타나는 동사는 물리적인 이동의 의미를 가지는 '나아가-, 내디디-, 다가가-, 다가서-, 양보하-, '와 추상적인 이동의 의미를 가지는 '성장시키-, 진보하-, 추적하-' 등을 비롯하여 다양하다. 그리고 이들 가운데에서 확실한 우열을 가리기 힘들 정도의 비슷한 빈도로 출현한다. '발자국'과 물리적 이동의 의미를 가지는 동사들이 자주 공기하는 것은 앞서 확인한 '걸음, 발, 발짝'의 공통된 특징이기도 하다. 다만 '발자국'은 추상적인 이동의 동사와도 비슷한 빈도로 함께 나타난다는 점에서 세 단위사와 차이를 보인다.

사태 단위사 '발자국'과 고빈도 동사가 공기하는 용례는 다음과 같다.

(46) ㄱ. 그는 이미 자신의 꿈을 향해 한 발자국씩 나아가고 있다.
ㄴ. 우리는 이렇게 한 발자국씩 내딛으면서 함께 자란다.

ㄷ. 서로에게 마음을 열고 한 발자국씩 다가가 봐요.
ㄹ. 자신들의 비전에 한 발자국씩 다가서고 있다.
ㅁ. 아이는 얼마 전부터 한두 발자국씩 걷고 있다.
ㅂ. 자, 유리창에서 한 발자국씩 물러서요.
ㅅ. 귀신이 있다면 한 발자국씩 다가오는 착각이 들 정도였다.
ㅇ. 강 형사는 조심조심 한 발자국씩 옮겼다.
ㅈ. 한 발자국씩 물러나서 냉철하게 생각해 봅시다.
ㅊ. 교정기를 떼고 한 발자국씩 걸어갔다.
ㅋ. 한 발자국씩 양보하고 대화와 타협을 해야 한다.
ㅌ. 그가 용기를 내서 한 발자국씩 움직이고 있다.
ㅍ. 주마다 교수님과 미팅을 하며 한 발자국씩 전진하였습니다.
ㅎ. 그는 다섯 발자국째를 내디뎠다.
ㄲ. 오빠는 일어서서 발걸음을 한 발자국씩 떼기 시작했다.

(46ㄱ~ㄹ, ㅂ~ㅍ, ㄲ)에서 수량 표현 '한 발자국'은 후행하는 서술어 '나아가고', '내딛으면서', '다가가', '다가서고', '물러서요', '다가오는', '옮겼다', '물러나서', '걸어갔다', '양보하고', '움직이고', '전진하였습니다', '떼기'가 나타내는 사태의 횟수가 1임을 표시한다. (46ㅁ)에서 수량 표현 '한두 발자국'은 후행 서술어 '걷고'가 표현하는 사태의 횟수가 1에서 2 사이임을 표시한다. 앞서 살펴 본 (46ㄱ~ㅍ)의 수량 표현에는 '-씩'이라는 접사가 결합하였는데,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이 접사의 역할은 '그러한 수량으로 되풀이되는 것'을 표시하는 것이다.

한편 (46ㅎ)의 수량 표현 '다섯 발자국'은 후행 서술어 '내디뎠다'가 표현하는 사태의 횟수가 5임을 표시한다. 이 문장에서는 수량 표현에 접사 '-째'가 결합하는데,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이는 '차례'를 나타낸다. 다시 말해, 수량 표현에 접사 '-씩', '-째'가 결합하는 것은 이들 수량 표현이 표시하는 사태의 발생 횟수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15] 바퀴

사태 단위사 '바퀴'는 73개 동사와 함께 799건의 용례에서 등장한다.

‘바퀴’와 높은 빈도로 함께 나타나는 동사의 빈도와 비율은 다음과 같다.

동사	빈도(회)	비율(%)
돌-	427	53.44%
회전하-	47	5.88%
하-	38	4.76%
돌리-	22	2.75%
자전하-	22	2.75%
돌아가-	21	2.63%
굴리-	16	2.00%

[표 3-18] ‘바퀴’와 공기하는 고빈도 동사

(47) ㄱ. 그는 공원을 매일 자전거로 세 바퀴씩 돈다.
ㄴ. 김 씨는 최근 학교를 한 바퀴씩 뛰면서 훈련을 하고 있다.
ㄷ. 태풍에 양동이가 공중 돌아 한 바퀴 하고 떨어졌어요.
ㄹ. 배부르면 한 바퀴라도 돌려야겠어요.
ㅁ. 지구는 하루에 한 바퀴씩 자전한다.
ㅂ. 선발 로테이션이 두 바퀴째 돌아가고 있다.
ㅅ. 한 바퀴라도 굴리면 둥지가 사라지니까요.

(47ㄱ)에 쓰인 수량 표현 ‘세 바퀴’는 후행하는 서술어 ‘돈다’가 나타내는 사태의 횟수가 3임을 나타낸다. (47ㄴ, ㄷ, ㄹ, ㅁ, ㅅ)에 쓰인 ‘한 바퀴’는 후행하는 서술어 ‘뛰면서’, ‘하고’, ‘돌려야겠어요’, ‘자전한다’, ‘굴리면’이 나타내는 사태의 횟수가 1임을 표시한다. (47ㅂ)의 ‘두 바퀴’는 서술어 ‘돌아가고’가 나타내는 사태의 횟수가 2임을 표시한다.

사태 단위사 ‘바퀴’의 용례 중에서는 (47ㄱ)처럼 동사 ‘돌-’과 공기하는 용례가 427건으로 가장 큰 비율(약 53%)을 차지한다. 그 밖에도 ‘회전하-, 돌리-, 자전하-’ 등 물체의 회전에 관련한 동사가 주로 공기한다. 한편 (47ㄴ)의 ‘뛰-’와 같이 회전에 관한 의미가 없지만, 둘레

가 둥근 장소에서 이동하는 의미의 동사도 '바퀴'와 자주 공기한다. 그 밖에, 전체 말뭉치에서 가장 높은 빈도(약 6.09%의 비율)로 출현하는 동사 '하-'도 (47ㄷ)을 비롯한 일부 용례에서 '바퀴'와 함께 출현한다.

'바퀴'와 함께 출현하는, 회전에 관한 동사는 다음과 같다.

(48) 돌다, 회전하다, 돌리다, 자전하다, 돌아가다, 굴리다, 돌아보다, 회전시키다, 공전하다, 굴러가다, 돌아서다, 구르다, ...

회전의 의미를 가지지 않는, 이동에 관한 동사 중 다음의 동사들도 '바퀴'와 함께 나타난다.

(49) 뛰다, 달리다, 움직이다, 걷다, 이르다, 몰다, 가다, ...

[16] 순배

동사	빈도(회)	비율(%)
돌-	232	58.59
돌리-	71	17.93
돌아가-	50	12.63

[표 3-19] '순배'와 공기하는 고빈도 동사

말뭉치에서 검색한 '순배'는 24개 동사와 함께 396개의 용례에서 나타났는데, 이 가운데 '돌다, 돌리다, 돌아가다'가 차지하는 비율은 모두 합하여 89.15%로 나타났다. 세 동사가 포함된 문장에서 '순배'가 사용될 때는 술자리에 참석한 사람들 모두에게 술이 두루 돌아간 사태의 횟수를 의미했다. '순배'와 '돌-', '돌리-', '돌아가-'가 사용된 용례는 다음과 같다.

(50) ㄱ. 술이 다섯 순배 돌았고 안주도 세 번이나 올라왔다.
ㄴ. 진달래술이 한 순배씩 돌려지고 젓가락들이 분주히 오갔다.
ㄷ. 술이 한 순배 돌아가기가 무섭게 수석은 말문을 열었다.

(50ㄱ)에 쓰인 수량 표현 '다섯 순배'는 후행하는 서술어 '돌았고'가 나타내는 사태의 횟수가 5임을 나타내고, (50ㄴ, ㄷ)에 쓰인 '한 순배'는 후행하는 서술어 '돌려지고', '돌아가기'가 나타내는 사태의 횟수가 1임을 표시한다.

그 밖에도, '나누다, 마시다, 걸치다, 권하다, 들다, 비우다, 사다, 오가다, 올리다, 지나다, 취하다, 털다, 하다'가 '술자리에서 여러 사람이 술을 마시는 행위'와 관련된 의미로 사용되었는데 1회부터 5회까지 비교적 적은 빈도로 '순배'와 공기하였다. 이 경우에 속하는 '순배'의 용례를 일부 제시한다.

(51) ㄱ. 두 사람은 오향주를 두 순배 가량 나누며 친밀감을 나눴다.
ㄴ. 그들은 폭탄주를 5, 6순배 마셨다.
ㄷ. 윤씨랑 한 순배 걸치고 우현이는 토방에 드러누웠다.
ㄹ. 시진은 몸소 잔을 들어 술 세 순배를 권하였다.

위 용례들을 살피면, 술을 마시는 참여자가 여럿이며 그들이 돌아가며 한 번씩 술을 마시는 사태를 1회로 상정하여 그 횟수를 세는 단위사가 '순배'임을 이해할 수 있다.

그런데 용례에 따라서는 '순배'를 음주 행위에 국한하지 않고, 어떤 집단의 구성원이나 구성 요소를 두루 거치며 진행되는 사태의 횟수를 세는 데 사용하기도 했다. 이 경우에 해당하는 동사로는 '끝나다, 마치다, 오르다, 진행되다, 차다'가 나타났는데, 각각 1~2회의 매우 적은 빈도로 등장하였다.

(52) ㄱ. 세 신문과 세 방송이 짝을 맞춘 TV토론이 한 순배 끝났다.
ㄴ. 여러 나라의 총리들이 교차회담을 한 순배 마쳤다.
ㄷ. 지금은 수요 측면에서 제품 보급이 한 순배 진행된 시기다.
ㄹ. 매일 세포가 죽고 태어나는 것이 7년이면 한 순배가 찬다.

위의 용례들은 술자리에서 여러 사람이 돌아가며 술을 마시는 사태와 무관하지만, 사태의 참여자들이 돌아가면서 어떤 행위를 하는 사태를 나타내므로 '순배'를 이용하여 그 횟수를 셀 수 있다. 그리고 이 경우에 사용되는 동사는 음주 관련 사태의 횟수를 세는 동사와 구별된다.

용례를 분석하였을 때, '순배'는 여럿이 참여한 술자리에서 모두 한 번씩 술을 마신 사태를 주로 세지만, 그 밖에도 여러 참여자들이 순차적으로 어떤 행위를 하여 마지막 참여자까지 그 행위를 마친 사태의 횟수를 셀 수도 있다. 즉 '순배'는 여러 참여자가 모두 동일한 행위를 하는 상황에서, 첫 번째 참여자의 행위 시작부터 마지막 참여자의 행위 마침까지를 한 번으로 세는 때에 사용되는 사태 단위사이다.

[17] 홰

다음은 단위사 '홰'와 공기하는 2개 동사의 출현 빈도와 비율이다.

동사	빈도(회)	비율(%)
울-	32	64
치-	18	36

[표 3-20] '홰'와 공기하는 동사

(53) ㄱ. 사랑방의 전깃불은 번번이 닭이 두 홰 울은 뒤에야 꺼졌다.
ㄴ. 동방이 밝아 오고 닭이 세 홰 쳤으니, 밤이 오경쯤 되었다.

위 (53)은 '홰'와 각 동사가 공기하는 용례다. 말뭉치에서 사태 단위사 '홰'는 50건이라는 매우 적은 수의 용례에서만 출현하였다. 그 중 동사 '울-'과는 32회, '치-'와는 18회 함께 나타났다. (53ㄱ)은 '홰'와 '울-'이, (53ㄴ)은 '홰'와 '치-'가 공기한 용례다. (53ㄱ)의 수량 표현 '두 홰'는 서술어 '울은'이 표현하는 사태의 횟수가 2임을 표시하고, (53ㄴ)의 수량 표현 '세 홰'는 서술어 '쳤으니'가 표현하는 사태의 횟수가 3임을 표시한다.

[18] 코

동사	빈도(회)	비율(%)
뜨-	576	98.13
반복하-	7	1.19
뜨개질하-	2	0.34
가르치-	1	0.17
꿰-	1	0.17

[표 3-21] '코'와 공기하는 동사

말뭉치에서 사태 단위사 '코'는 5개 동사와 함께 587개의 용례에서 발견되었는데, 그 중 동사 '뜨다'가 약 98%의 압도적인 비율로 '코'와 함께 나타났다. 그 밖에도 '뜨개질하다, 꿰다'처럼 유사한 의미의 동사로 각각 2회, 1회로 '코'와 함께 나타났다. 이들의 용례는 다음과 같다.

(54) ㄱ. 한 코 두 코 뜨다 보면 나도 유럽 귀부인!
ㄴ. 시선은 한 코 한 코 뜨개질하는 손놀림에 집중했다.
ㄷ. 실을 돗바늘에 끼우고 8코를 꿴다.

(54ㄱ)의 수량 표현 '한 코'와 '두 코'는 후행 서술어 '뜨다'가 표현하는 사태의 횟수가 각각 1과 2임을 표시한다. (54ㄴ)의 수량 표현 '한 코'는 후행 서술어 '뜨개질하는'이 표현하는 사태의 횟수가 1임을 나타내면서, 반복적으로 사용되어 이 사태가 반복됨을 나타낸다. (54ㄷ)의 수량 표현 '8코'는 서술어 '꿴다'가 나타내는 사태의 횟수가 8임을 나타낸다.

뜨개질과 무관한 동사로는 '반복하다, 가르치다'가 각각 7회, 1회 공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용례는 다음과 같다.

(55) ㄱ. 겉뜨기 1코, 안뜨기 2코를 반복하면서 뜬다.
ㄴ. 그 사람은 이웃들에게 한 코 한 코 뜨개질을 가르쳤다.

뜨개질에서 한 코 뜨는 일은 매우 짧은 시간 동안 발생하며, 뜨개질의 과정 전체에서는 매우 반복적으로 일어난다. 이러한 이유로 (55ㄱ)에서 '반복하다'의 횟수를 세는 사태 단위사로 '코'를 사용한 것은 적절하다.

한편 (55ㄴ)의 '한 코 한 코 뜨개질을 가르치다'에서 '코'는 '가르치는 사태'가 한 코를 뜨는 일까지 가르칠 정도로 세세하고 차근차근 일어남을 강조하려는 의도로 사용되었다. 즉 이때의 '코'도 짧은 시간의 사태가 매우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경우에 사용된 것이다.

'코'가 동사 '잡다, 걸다'와 함께 나타나며 물질 단위사로 쓰이는 용례가 있으며, 다음과 같다.

(56) 먼저 16코를 잡고, 줄바늘 양쪽에 8코씩 건다.

이때의 '코'는 '잡는 사태'의 횟수가 16회, '거는 사태'의 횟수가 8회라는 의미로 사용된 사태 단위사가 아니다. 이 경우 뜨개질을 하기 위한 매듭을 16개 '잡은' 후 줄바늘 양쪽에 각각 8개씩 나누어 '걸도록' 하는 것이므로, 이때의 '코'는 사태 단위사가 아닌 물질 단위사에 해당한다.

용례에서 확인하였듯이 '코'는 매우 짧은 시간에 일어날 만한 사태가 반복적인 경우에 사용되는 사태 단위사이다. 그러나 이러한 사태 전부에 대해 '코'가 사용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는 '코'가 본래 '뜨개질하는 경우에 만드는 매듭'을 뜻하는 자립명사에서 유추된 단위사이기 때문이다. '코'와 공기하는 동사 중에서 '뜨다, 뜨개질하다, 꿰다' 등 뜨개질과 관련된 동사가 압도적으로 높은 공기 비율을 차지하는 것은 '코'의 출신 때문이다.

[19] 배

동사	빈도(회)	비율(%)
낳-	45	93.75
태어나-	2	4.17
치-	1	2.08

[표 3-22] '배'와 공기하는 동사

사태 단위사 ‘배’는 동형어가 많아 형태만으로 효율적인 용례 검색이 어려웠다. 따라서 ‘배’ 앞에 수사 또는 수 관형사가, ‘배’ 뒤에 ‘새끼’나 ‘낳-’이 오는 조건을 걸어 용례를 검색하였다. 그 결과 전체 48건의 용례가 검색되었고, 그 중 동사 ‘낳-’이 45회, ‘태어나-’가 2회, ‘치-’가 1회의 빈도로 ‘배’와 함께 나타났다.

(57) ㄱ. 바둑이는 새끼를 세 배인가 네 배를 낳았다.
ㄴ. 드디어 수백 마리의 한 배 새끼가 태어났다.
ㄷ. 제비가 한 해 여름에 두 배 새끼를 치면 길조가 든다.

(57ㄱ)은 ‘배’와 동사 ‘낳-’이 공기하는 용례다. 수량 표현 ‘세 배’와 ‘네 배’는 후행하는 서술어 ‘낳았다’로 표현되는 사태의 횟수가 각각 3과 4임을 표시한다. (57ㄴ)은 ‘배’와 동사 ‘태어나-’가 공기하는 용례인데, 단위사 ‘배’가 쓰인 수량 표현이 명사 ‘새끼’를 동격으로 수식하는 구조를 취한다. 이 문장에서 수량 표현 ‘한 배’는 서술어 ‘태어났다’로 나타나는 사태의 횟수가 1임을 표시한다. (57ㄷ)은 ‘배’와 ‘치-’가 공기하는 용례로, ‘한 해 여름에’라는 부사구를 사용하고 있다. 이 문장은 앞서 살핀 (57ㄴ)와 달리 수량 표현 ‘두 배’와 명사 ‘새끼’가 동격 구조를 가지지 않으며, ‘두 배’는 후행하는 서술어 ‘치면’이 나타내는 사태의 횟수가 2임을 표시한다.

[20] 순

말뭉치에서 사태 단위사 ‘순’이 쓰인 용례는 3개 동사와 함께 총 281건 발견되었다. 그 중 동사 ‘쏘다’와 함께 사용된 예가 279건으로, 압도적인 비율로 ‘순’과 함께 나타났다. 그 밖에 동사 ‘맞다’(1회), ‘자청하다’(1회)가 ‘순’과 함께 쓰였다. 단위사 ‘순’의 용례 중 동사 ‘쏘-’와 공기하는 문장이 압도적으로 높은 비율을 보이나, ‘쏘-’ 외의 동사가 공기하는 문장도 주목할 필요가 있으므로 아래 표에서는 ‘순’과 공기하는 모든 동사의 출현 빈도와 비율을 보였다.

동사	빈도(회)	비율(%)
쏘-	279	99.29
맞-	1	0.36
자청하-	1	0.36

[표 3-23] '순'과 공기하는 동사

'순'과 동사 '쏘-', '맞-', '자청하-'가 공기하는 용례는 다음과 같다.

(58) ㄱ. 자넨 다른 사람들보다 열 순을 더 쏘게.
ㄴ. 활 열 순을 쏘았는데, 그 중 다섯 순은 다 맞았다.
ㄷ. 첫 순은 자청하여 쏘고 둘째 순은 활 임자의 청으로 쏘았다.

(58ㄱ)의 수량 표현 '열 순'은 후행 서술어 '쏘게'가 나타내는 사태의 횟수가 10임을 표시한다. (58ㄴ)의 수량 표현 '다섯 순'은 후행 서술어 '맞았다'가 나타내는 사태의 횟수가 5임을 표시하고, (58ㄷ)의 수량 표현 '첫 순'은 후행 서술어 '자청하여'가 나타내는 사태가 첫 번째이므로, 그 횟수는 1임을 표시한다. 다만 주목할 점은 '순'과 '쏘-' 이외의 동사가 공기한 용례에서도 앞뒤 맥락에서 '쏘다'가 사용되었다는 것이다. '순'이 동사 '쏘-'와 매우 긴밀한 관계를 이룸을 짐작할 수 있다.

[21] 획

다음은 '획'가 1% 이상의 비율로 공기하는 동사의 출현 빈도와 비율이다.

동사	빈도(회)	비율(%)
긋-	5,842	89.92
고치-	91	1.40
쓰-	70	1.08

[표 3-24] '획'과 공기하는 고빈도 동사

말뭉치에서 사태 단위사 '획'이 쓰인 용례는 6,497건 발견되었으며, 이들은 116개의 동사와 함께 나타났다. 그 중 동사 '긋다'는 '획'과 함께 5,842건(약 90%)을 출현하였다. 다음은 '획'이 동사 '긋다'와 함께 쓰인 용례의 일부다.

(59) ㄱ. 창호지에 한 획을 <u>그으려고</u> 붓을 들었다.
ㄴ. 한국 애니메이션 역사에 한 획을 <u>그을</u> 작품이 탄생했다.

(59)의 두 문장에서 수량 표현 '한 획'은 서술어로 후행하는 동사 '긋-'이 나타내는 사태의 횟수가 1임을 표시한다.

(59ㄱ)의 '한 획을 긋다'는 축어적인 의미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59ㄴ)은 관용 표현 '획을 긋다'의 의미('어떤 범위나 시기를 분명하게 구분 짓다')로 사용되었다. 말뭉치에서 사태 단위사 '획'과 동사 '긋다'가 공기하는 용례의 대다수가 관용 표현 '획을 긋다'의 용례였다.

[22] 바늘

동사	빈도(회)	비율(%)
꿰매-	276	95.83
뜨-	3	1.04
꿰-	2	0.69
집-	2	0.69
찌르-	2	0.69
깁-	1	0.35
봉합하-	1	0.35
틀리-	1	0.35

[표 3-25] '바늘'과 공기하는 동사

말뭉치에서 검색한 '바늘'의 용례 중 전체 288개 용례 중 '꿰매-'가

276회 등장하여 압도적인 비율로 '바늘'과 공기하였다. 그 밖에 '뜨-', '꿰-', '깁-', '봉합하-'가 1회에서 3회 사이의 빈도로 '바늘'과 함께 사용되었다. 이들 동사는 모두 바늘을 사용하여 바느질을 하는 동작과 관련된다. 이들의 용례는 다음과 같다.

(60) ㄱ. 김 선생은 병원에 가서 열 바늘을 꿰맸다.
ㄴ. 염라대왕 앞에 가면 잘못한 걸 한 바늘씩 떠야 한다더라.
ㄷ. 거대한 모자이크를 한 바늘씩 꿰는 작업이에요.
ㄹ. 열 바늘을 깁고 반창고를 붙인 몰골은 어처구니가 없다.
ㅁ. 코 우측에 여섯 바늘을 봉합하는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60ㄱ, ㄹ)의 수량 표현 '열 바늘'은 후행하는 서술어 '꿰맸다', '깁고'가 나타내는 사태의 횟수가 10임을 표시한다. (60ㄴ, ㄷ)의 수량 표현 '한 바늘'은 후행 서술어 '떠야', '꿰는'이 표현하는 사태의 횟수가 1임을 표시한다. (60ㅁ)의 수량 표현 '여섯 바늘'은 후행 서술어 '봉합하는'이 나타내는 사태의 횟수가 6임을 표시한다.

'바늘'과 동사 '집다'가 공기하는 경우도 2건 발견되었다. 그 용례는 다음과 같다.

(61) ㄱ. 입술 안쪽 스무 바늘을 집었고 입원 중입니다.
ㄴ. 모두 열일곱 바늘을 집었다고 하니 얼마나 아플까.

이때의 '집다'는 '꿰매다'류 동사와 유사한 의미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이나, 표준어 '집다'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지 않다. '깁다'가 강원·경상·충청 지역에서 '집다'의 방언형으로 사용되고 있어, 그러한 방언 사용이 말뭉치 용례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바늘'과 동사 '찌르다'가 함께 쓰인 경우는 2건 발견되었다. 그 용례는 다음과 같다.

(62) ㄱ. 한 바늘씩 찌르는 그의 다리맡에 휴지와 약이 흩어져 있다.

ㄴ. 머리에 침 한 바늘을 찌르자 사지 하나가 꿈틀했다.

‘찌르다’는 앞서 살펴 본 ‘꿰매다’ 등과 같은 의미를 가지지는 않으나, 여러 바늘 꿰맬 때와 마찬가지로 여러 번 반복해서 찔러야 하는 경우에 사태 단위사 ‘바늘’을 사용하여 찌르는 횟수를 표시할 수 있다.

‘바늘’과 동사 ‘틀리다’가 함께 쓰인 용례는 1건으로 다음 (63)이다.

(63) 그는 수를 놓으면서 한 바늘이라도 틀리지 않으려고 집중했다.

이 문장에 쓰인 동사 ‘틀리다’는 ‘수를 놓는’ 동작과 무관해 보이지만, 사태 단위사 ‘바늘’이 사태성을 지니고 있으므로 ‘한 바늘을 틀리다’라는 표현은 ‘수를 놓는 동작 한 번을 틀리다’라는 의미로 쉽게 이해된다.

사태 단위사 ‘바늘’과 공기하는 동사는 대부분의 경우에 바느질에 관련되거나, 바늘을 이용하여 찌르는 의미의 동사이다. 이러한 동사를 통해 표현하는 사태는 시간의 폭이 넓어서 지속성을 가지는 사태가 아니라, 순간적으로 발생하는 사태라는 공통점을 가진다.

3.3. 사태 단위사의 의미적 동질성과 이질성

‘끼, 끼니’는 ‘번, 차례’와 ‘걸음, 발, 발자국, 발짝’에 비해 상대 엔트로피 값의 차이가 큰 편이다. ‘번’과 ‘차례’는 서로 간에 0.49, ‘걸음, 발, 발자국, 발짝’은 ‘걸음’과 ‘발’이 0.32, ‘발’과 ‘발자국’이 0.05, ‘발자국’과 ‘발짝’이 0.33의 차이를 보이며 네 단위사 중 서로 간의 거리가 가장 먼 ‘걸음’과 ‘발짝’은 0.70의 차이를 보인다. 그런데 ‘끼’와 ‘끼니’는 0.88이라는 비교적 큰 차이를 보인다. 이 절에서는 ‘끼’와 ‘끼니’의 차이에 주목한다.

‘끼니’는 ‘끼’의 본말이며 두 명사 사이의 의미적 차이는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인다. 두 단위사와 공기하는 상위 10개 동사의 목록은 다음과 같다.

끼			끼니	
동사	비율(%)	순번	동사	비율(%)
먹-	41.68	1	먹-	38.65
하-	6.68	2	때우-	9.48
해결하-	5.10	3	해결하-	5.75
때우-	4.29	4	챙기-	5.60
즐기-	3.29	5	굶-	4.89
굶-	3.01	6	차리-	3.59
챙기-	2.76	7	거르-	3.02
먹이-	2.49	8	먹이-	2.59
대접하-	1.64	9	하-	2.16
들-	1.57	10	얻어먹-	2.01

[표 3-26] '끼' 및 '끼니'와 공기하는 고빈도 동사

다만 전체 말뭉치에서는 빈도 1위로, '끼'와의 공기에서는 2위로 나타나는 등 극고빈도로 쓰이는 동사 '하-'가 '끼니'와의 공기에서는 빈도 9위에 그친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이러한 차이는 '끼' 및 '끼니'와 공기했을 때 '하-'가 대체로 가지는 의미의 차이 때문이다. 아래는 '끼' 및 '끼니'와 '하-'가 함께 나타난 용례다.

(64) ㄱ. 계속 가고 싶었던 집이라 꽤 만족스러운 한 끼를 했다.
ㄴ. 차는 됐고 밥이나 한 끼 하죠.
ㄷ. 군인들은 소금만 가지고 하루 두 끼 식사를 했다.
ㄹ. 연인이 함께 한 끼니 식사를 하기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위 (64)의 문장에서 '한 끼 하다'와 '한 끼니 하다'는 식사를 한 번 먹는 것으로 해석된다. 반면, '끼니'와 '하-'가 함께 나타나는 문장에서 다른 의미를 나타내는 경우가 많다. 다음 (65)를 보자.

(65) ㄱ. 두 끼니 밥을 하려면 이만저만 품이 들지 않습니다.
ㄴ. 날마다 두 끼니나 세 끼니 밥을 해서 아이와 함께 먹습니

다.

위 (65)의 문장에서 쓰인 '두 끼니 하다'는 식사를 두 번 먹는 것이 아닌, 식사를 두 번 차리는(준비하는) 것을 의미한다. 말뭉치에서 검색된 '끼니'와 '하-'의 공기 문장 중에서는 위 (64ㄹ)처럼 식사를 먹는 의미를 나타내는 경우도 있었지만, (65)처럼 식사를 준비하는 의미를 나타내는 문장이 더욱 많았다. 단위사에 따라 같은 동사가 보이는 의미의 차이가 단위사별 상대 엔트로피의 차이로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4. 상황 유형[14]과 사태 단위사

4.1. 상황 유형

사태는 시간의 흐름 속에서 한 위치를 차지하면서, 그 자체로 시간 도식(time schemata)을 가지기도 한다. 사태의 시간 도식이 표현되는 방식을 규명하려는 시도가 일찍이 다수 있었다. Vendler(1957: 143)에서는 동사와 시간 개념 사이에서 시제(tense)를 넘어서는 관련성을 포착하고, 여러 동사에서 전제되는 시간 도식에 주목하여 이 관련성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진행 시제(continuous tense)가 인정되는 동사에 대해서는 그 시간 도식에 종점(terminal point)이 존재하는 경우를 완성(accomplishment) 유형으로, 종점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를 행위(activity) 유형으로 분류했다. 그리고 진행 시제가 인정되지 않는 동사에 대해서는 한 순간에 이루어지는 경우를 달성(achievement) 유형으로, 상당한 기간 동안 이루어지는 경우를 상태(state) 유형으로 분류했다.

특기할 점은, Vendler(1957)이 시간 도식에 의한 분류를 동사에 고정적인 것으로 보지 않았다는 것이다. 예컨대 '뛰다'나 '카트를 밀다'의 시간 도식에는 종점이 없으므로 행위 유형으로 보았고, '1마일을 뛰다'나 '동그라미를 그리다'의 시간 도식에는 종점이 있으므로 완성 유형으로 보았다(Vendler 1957: 145-146). 동일한 동사 '뛰다'를 사용했음에도 논항 '1마일을'이 추가됨으로써 이 사건에 종점이 생겨 완성 유형에 해당하게 된다고 판단한 것이다.

---

14) 다수의 기존 연구에서 '어휘상' 또는 '동작류'라는 명칭을 사용하였으나, '어휘상'은 개별 동사를 정적으로 분류하는 것으로 한정할 수 있고 '동작류'는 논의의 대상을 동작으로 제한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술어의 시간 도식과 관련하여 상태성, 종결성, 순간성의 자질값으로 이루어지는 술어의 분류를 일컫는 말로 '상황 유형'을 사용한다.

Lyons(1977)에서는 '상(aspect)'과 독일어 상 논의에서 쓰이는 '동작류(Aktionsart)'의 개념을 비교하면서, 동작류는 동사의 의미가 아니라 동사 자체를 가리키는 말이며 '동작'이라는 개념이 지엽적이므로 이를 가리키는 명칭으로 '상적 특성(aspectual character)'을 제안했다.

같은 개념을 Van Valin and LaPolla(1997: 82-138)에서는 '동작류 유형(Aktionsart type)'으로 명명하고, [±static], [±telic], [±punctual][15]의 자질에 따라 상태(state), 달성(achievement), 완성(accomplishment), 행위(activity)의 네 유형으로 나누었다. Vendler(1957)에서 Van Valin and LaPolla(1997)로 이어지며 규정된 상황 유형의 종류와 그 상적 자질 값을 도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상태성	종결성	순간성
상태	+	−	−
행위	−	−	−
완성	−	+	−
달성	−	+	+

[표 4-1] 상황 유형의 종류

Smith(1991: 27-64)에서는 상적 자질이 동사에 고정된 것이 아니라 동사구에 따른 것임을 인지하여 상황 유형(situation type)으로 명명했다. 그리고 [±stative], [±telic], [±durative]의 자질에 따라 상태(states), 행위(activities), 완성(accomplishments), 순간(semelfactives), 달성(achievements)의 다섯 가지 상황 유형으로 나누었다. 독특한 점은, Vendler(1957)이나 Van Valin and LaPolla(1997)에서 설정하지 않은 '순간' 유형을 설정하였다는 것이다. Smith(1991)에서는 'knock, cough'처럼 순간적이면서 완결되지 않는 상황이 [−stative, −telic, −durative]의 자질을 가지는 것으로 보아 이들을 '순간'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15) Comrie(1976: 41-42)에서 지속성(durative)과 대립되는 개념을 점성(punctual)으로 보았다(박덕유 1998: 72에서 재인용)

어휘상의 개념을 한국어의 동사에 적용하여 여러 동사를 상보적으로 분류하고자 한 시도가 여럿 있었다. 정문수(1982)에서는 풀이씨(용언 및 계사)가 상태성, 순간성, 한계성, 결과성의 상적 속성을 가질 수 있는 것으로 보고 네 속성의 내포 여부에 따라 여섯 가지 부류로 나누었다. 이남순(1998: 42-59)에서는 [±동적], [±정적], [±국시적(局示的)]의 세 자질에 따라 용언을 여덟 부류로 나누었다. 박덕유(1998: 71-158)에서는 [±순간성], [±완결성], [±동태성], [±접근성]의 네 가지 자질을 기준으로 용언을 7종류로 분류하였다. 그런데 이들 연구에서는 대체로 어휘상을 동사 자체에 국한한 개념으로 보고 있으며, 상적 자질을 결정하는 데 논항이나 부가어의 개입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논의의 한계가 존재한다.

김윤신(2006)에서는 한국어 동사의 어휘상 설정에 대해, 모든 동사(술어)가 이들 부류 중 하나에 반드시 속하는 것은 아니며 또 연구마다 일관되게 분류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했다. 특히 Vendler(1957, 1967)에서 동사를 네 가지 상적 부류로 분류한 시도에 대해, 일부 동사가 달성 동사와 같은 상적 특성을 가지면서도 '30분 동안' 등의 부사구와 공기하여 완성 동사와 같은 특성을 가지게 되는 반례를 들었다. 한국어 동사를 상적 자질에 따라 분류한 연구들에 대해 이러한 분류가 동사와 다른 요소의 결합 등에 따른 해석의 차이 등을 설명하는 데에 한계를 가진다고 보았다.

이는 다시 Vendler(1957)에서 밝힌 동사의 시제를 벗어난 상적 자질을 살펴야 하는 이유로 귀결된다. Vendler(1957: 143)에서는 동사가 시제를 가진다는 점이 동사와 시간 개념 사이의 어떤 관련성을 시사하는데, 이 관련성은 시제에 국한되지 않으며 대상(object)의 존재, 조건(conditions), 사태의 의도 등 다른 요소들이 개입하면서 시간에 대한 동사의 의존성이 더 밀접할 수 있다고 보았다. 다시 말해, 술어의 상황 유형은 그 문장에 포함된 다른 요소와의 결합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Vendler(1957)의 설명과, 논항을 포함하는 동사구 전체를 고려하여 상황 유형을 판단한 Smith(1991)의 논지에 기댄다면 사태 단위

사가 포함된 구가 동사의 어휘상을 바꾸는 요소가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러한 가능성을 보여주듯이, 김천학(2014)에서는 한국어에서 논항의 실현에 따라 종결성(telicity)이 구분되는 사례를 포착하였다. Croft(2012)에서 완성 동사구의 진행상이 해당 사태의 '완성'을 함의하지 못하는 '미완료 역설'(imperfective paradox)을 제안하였는데, 이 현상이 한국어에도 해당됨을 보인 것이다. 다만 '상황에 따라' 혹은 '맥락에 따라' 종결성의 해석이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하며 구체적인 차이의 원인을 지적하지는 않았다.

본고에서는 상황 유형을 결정하는 상적 자질로 [상태성], [종결성], [순간성]을 설정한다. Van Valin and LaPolla(1997: 95), 조민정(2000), 박소엉(2011), 김천학(2014) 등 여러 연구에서 각 자질 값을 판단하는 각자의 기준을 설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각 자질 값을 판단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다.

(66) 상적 자질의 판단 기준
ㄱ. 상태성: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나요?'의 답변 가능성
ㄴ. 종결성: 용언 어간과 '-다 말-' 결합 가능성
ㄷ. 순간성: 부사구 'T 동안'과의 공기 가능성

[상태성]은 상태 유형과 행위·달성·완성 유형을 구분하는 가장 일차적이고 기본적인 상적 자질이다. [+상태성]은 힘이 작용하지 않고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 것을 말하고, [-상태성]은 힘이 작용하거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말한다. 가령 '어떤 사실을 아는 것'은 힘이 작용하지 않고 변화도 일어나지 않아 [+상태성]의 자질 값을 가지고, '뛰는 것'은 힘도 작용하면서 변화도 일어나 [-상태성]의 자질 값을 가진다. '서 있는 것'은 변화가 일어나지 않지만 이를 위해 힘이 작용하여야 하므로 [-상태성]의 값을 가진다(Comrie 1976: 49). Van Valin and LaPolla(1997: 95)에서는 동사에 진행상(progressive) 요소인 'be V-ing'형태를 취하여 [상태성] 자질 값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하였지만,

일부 언어에 대해서는 이 판별법이 적절하지 않다고도 보았다. 그런데 한국어가 바로 이 반례에 해당한다. 한국어에서 'be V-ing'에 해당하는 요소는 '-고 있-'인데, [+상태성] 값을 가진다고 직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동사들(믿다, 사랑하다 등)은 '믿고 있다, 사랑하고 있다'와 같이 '-고 있-'이 결합하여도 자연스럽다. 박진호(2011ㄱ: 302)에서는 이 현상의 이유로 '-고 있-'이 온전한 진행상 요소가 아닌 연속상(continuous) 요소이기 때문으로 보았다. 그렇다면 한국어에서 [상태성]의 자질 값을 판단할 만한 진행상 요소는 없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한국어의 현실에 맞추었을 때, [상태성]의 값을 판단하는 기준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나요?'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 가능한지 확인하는 것이다.

(67) ㄱ.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나요?
ㄴ1. 철수가 호랑이를 무서워합니다.
ㄴ2. 영수가 달립니다.
ㄴ3. 수지가 산 정상에 다다랐습니다.
ㄴ4. 은지가 오늘의 숙제를 끝냈습니다.

(67ㄱ)과 같은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67ㄴ)의 각 문장을 답한다고 가정하자. (67ㄴ2~4)는 적절하게 느껴지는 반면, (67ㄴ1)은 자연스럽지 않은 답변으로 느껴진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나요?'라는 질문은 힘이 작용하는지 또는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확인하는 질문이므로, 여기에 적절한 답변이 되는 문장은 [-상태성]의 자질 값을 가지고 반대로 적절하지 않은 답변이 되는 문장은 [+상태성]의 자질 값을 가지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둘째로, [종결성]을 판단하는 기준은 해당 문장의 용언 어간에 '-다 말-'을 추가한 문장이 그 행위를 하지 못하였음을 뜻하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68) ㄱ. 영수는 청소를 했다.

ㄱ′. 영수는 청소를 하다 말았다.
ㄱ″. 영수는 청소를 하지 못했다.
ㄴ. 영수는 청소를 다 했다.
ㄴ′. 영수는 청소를 다 하다 말았다.
ㄴ″. 영수는 청소를 다 하지 못했다.

(68ㄴ)은 (68ㄱ)에 부사 '다'를 삽입한 문장이다. (68ㄱ′)와 (68ㄴ′)는 (68ㄱ)과 (68ㄴ)의 용언 어간에 '-다 말-'을 결합한 것이다. (68ㄱ″)와 (68ㄴ″)는 (68ㄱ)과 (68ㄴ)의 용언 어간에 '-지 못하-'를 결합한 것이다. (68ㄱ′)는 여전히 영수가 청소를 했음을 의미하므로 (68ㄱ″)와 같은 의미를 가지지 않지만, (68ㄴ′)는 (68ㄴ″)를 함의함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부사 '다'가 삽입되면서 해당 사태에 종결점이 생겼기 때문이다. (68ㄱ)에서 표현하는 사태는 영수가 청소를 하는 사태이며 여기에는 종결점이 없어 영수가 청소를 하는 도중 언제든지 그만두어도 영수는 청소를 한 것이 된다. 그러나 (68ㄴ)에서 표현하는 사태는 영수가 청소를 시작해서, 청소를 하다가, 청소의 모든 일을 다 마치는 종결점까지 상정하므로 영수가 청소를 하는 도중 그만둔다면 '영수는 청소를 다 하지 못한 것'이 된다. 다시 말해, 이 경우는 부사 '다'의 개입이 상황 유형을 바꾼 사례다.

[순간성]을 판단하는 기준은 부사구 'T 동안'과 결합하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69) ㄱ. 영희는 산 정상에 다다랐다.
ㄴ. ??영희는 1시간 동안 산 정상에 다다랐다.

(69ㄴ)은 (69ㄱ)에 부사구 '1시간 동안'이 삽입된 것이다. 이러한 시간 부사구가 삽입되었을 때 문법적인 문장이 된다면 해당 사태는 어느 정도의 시폭을 가지고 있어 [-순간성]의 상적 자질을 가지는 사태인 것이다. 그런데 (69)에서 '영희가 산 정상에 다다르는' 사태는 '1시간 동안'과 결합하였을 때 매우 어색한 문장을 만들어내므로, 이 사태는 발

생의 시폭을 상정하기 어려운 [+순간성]의 상적 자질을 가지는 사태임을 알 수 있다.

다음 4.2절에서는 세 가지 기준을 통해 앞으로 살펴볼 문장의 상적 자질 값을 판단하고, 상황 유형을 분류한다.

4.2. 상황 유형을 바꾸는 사태 단위사

사태 단위사가 상황 유형을 바꾸는 현상에 대해 알아보기 전에, 사태 단위사와 결합하는 수 관형사의 값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 油谷幸利(1978: 12; 이호승 1997: 75에서 재인용)와 정문수(1982)에서는 복수의 값을 가지는 수량 표현이 [+지속성]의 상적 자질을 가지는 보조 용언 '-고 있-'과 공기할 수 없음을 지적했다. 다음 두 문장을 보자.[16]

(70) ㄱ. 그는 아까 커피를 한 잔 마셨다.
ㄴ. 그는 아까 커피를 한 잔 마시고 있었다.
ㄷ. 그는 아까 커피를 세 잔 마셨다.
ㄹ. ??그는 아까 커피를 세 잔 마시고 있었다.

(70ㄱ, ㄷ)은 같은 대상역 '커피'의 수량이 1과 3으로 다른 문장이다. (70ㄴ, ㄹ)은 (70ㄱ, ㄷ)에 보조 용언 '-고 있-'이 결합한 문장인데, 이것이 문법적으로 판단되는 (70ㄴ)와 달리 대상역 '커피 세 잔'을 취하는 (70ㄹ)은 '-고 있-'이 결합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정문수(1982), 이호승(1997)에서는 이에 대해 커피 세 잔을 한꺼번에 마시는 것은 비현실적인 일이라는 화용적 이유를 제시한다. 그 대신 '커피를 세 잔째 마시고 있었다'는 가능한데, 이는 마시고 있는 커피의 서수가 3일 뿐 실제 커피의 양수는 1이기 때문이다.

위에서 살펴 본 개체 단위사와 본고에서 연구 대상으로 삼는 사태 단위사는 공통적으로 단위화 기능을 가지므로 위와 같은 화용적 원인 또

16) 다음 (70ㄴ, ㄹ)은 이호승(1997: 75)에서 사용된 문장을 인용한 것이다.

한 공통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다시 말해, 단위사의 종류에 관계 없이 수량 표현에 포함된 수 관형사의 값이 복수일 경우 해당 사태의 상황 유형이 달라진다. 따라서 대등한 비교를 위해서는 앞으로 살펴 볼 모든 예문에서 쓰인 수 관형사의 값을 하나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모든 수 관형사의 값을 단수로 고정하기로 한다. 즉 앞으로 살필 수량 표현은 수 관형사 '한'과 각 사태 단위사의 구성이다.[17)]

본 연구에서는 특정한 사태 단위사의 사용이 해당 사태의 상황 유형을 바꿀 수 있음을 주장한다. 앞서 2.4절에서 예문 (21)을 통해 '번'과 '걸음'의 차이를 살폈던 것처럼, 가장 범용적인 사태 단위사 '번' 대신에 다른 사태 단위사를 사용하는 것은 해당 사태의 상황 유형을 바꾸는 표현적 기능을 가진다. 따라서 이 절에서는 각 사태 단위사가 사태의 상황 유형을 바꾸는 방식에 대해 살펴 본다. 이에 앞서, 사태 단위사를 사용하여 사태의 횟수를 세는 것 자체가 상황 유형을 바꾸는 힘이 있을 것이므로 가장 범용적·중립적인 사태 단위사 '번'을 사용할 경우와 다른 사태 단위사를 사용할 경우를 비교하여야 한다. 따라서 사태 단위사 '번'의 사용이 상황 유형을 바꾸는 방식을 먼저 살핀 후, 각 사태 단위사별로 상황 유형 변화 방식을 다룬다.

먼저, 사태 단위사 '번'이 포함된 수량 표현은 [+상태성]의 상태 상황 유형에 쓰일 수 없다.

(71) ㄱ. 조부모님께서는 손자들을 사랑하셨다.
ㄴ. *조부모님께서는 손자들을 한 번 사랑하셨다.

(71ㄱ)은 앞서 (66)에서 정립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나요'라는 질문에 대해 자연스러운 답변이 되지 못하므로 [상태성] 자질 값의 판단 기준에 따랐을 때 [+상태성]의 값을 가지고, '조부모님께서는 손자들을 사랑하시다 말았다'라는 문장은 손자들을 사랑하셨음을 함의하므로 [종

17) 다만, '한'과 사태 단위사 구성이 특수한 의미를 가지고 쓰이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도 해당 사태의 상황 유형을 특이하게 바꾸는 경우이므로 제외한다. 더불어 이 구성이 가질 수 있는 특수한 의미에 대해서는 후일의 연구를 기약한다.

결성]의 판단 기준에 따라 [-종결성]의 값을 가지며, '조부모님께서는 오랫동안 손자들을 사랑하셨다'라는 문장이 적절하므로 [순간성] 자질 값의 판단 기준에 따라 [-순간성]의 값을 가진다. 따라서 (71ㄱ)의 상황 유형은 상태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71ㄱ)에 '한 번'이 추가된 문장 (71ㄴ)은 비문법적이다. 이는 수량 표현 '한 번'을 사용하는 것이 해당 사태가 시점과 종점을 가진다는 것을 함의하기 때문이다.

사태 단위사 '번'이 포함된 수량 표현이 사용될 때 원래 사태의 상황 유형이 변화하는 방식은 [종결성] 자질 값에 따라 두 가지 경우로 나뉜다. 먼저, 원래 [+종결성]의 값을 가지던 사태(완성·달성 유형)의 경우 해당 동사구의 상황 유형은 바뀌지 않는다.

(72) ㄱ. 홍수로 유실되었던 다리를 복구했다.
ㄱ′. 홍수로 유실되었던 다리를 한 번 복구했다.
ㄴ. 현실은 쉽지 않다는 것을 오늘 깨닫습니다.
ㄴ′. 현실은 쉽지 않다는 것을 오늘 한 번 깨닫습니다.

(66)의 상적 자질 판단 기준에 근거할 때, (72ㄱ, ㄴ)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나요'에 대해 자연스러운 답변이 되므로 [-상태성] 값을 가지고, 보조 용언 '-다 말-'이 결합할 때 복구하지 못했음을 함의하게 되므로 [+종결성] 값을 가진다. 한편 (72ㄱ)은 '두 달 동안'이라는 부사구와 공기할 수 있으므로 [-순간성] 값을 가져 완성 유형에 해당하는데, 대조적으로 (72ㄴ)은 'T 동안'과 같은 시간 부사구와 공기하지 못하므로 [+순간성] 값을 가져 달성 유형에 해당한다. 각 문장에 '한 번'이 삽입된 (72ㄱ′, ㄴ′)도 (66)의 상적 자질 판단 기준에 근거할 때 각각 완성 유형과 달성 유형에 해당한다.

반면 원래 [-종결성] 값을 가지던 사태(행위 유형)의 경우 [상태성], [순간성]의 자질 값을 유지하고 [종결성]의 자질 값을 바꾸어 [+종결성]을 부여한다. 다음 예를 보자.

(73) ㄱ. 철수는 공원을 뛰었다.

ㄴ. 철수는 공원을 한 번 뛰었다.

(66)의 상적 자질 판단 기준에 근거할 때, (73ㄱ)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나요'에 대해 적절한 답변이 되므로 [-상태성] 값을 가지고, 보조용언 '-다 말-'이 결합할 때 '철수가 공원을 뛰었음'을 함의하므로 [-종결성] 값을 가지며, 시간 부사구 '1시간 동안'과 공기할 수 있으므로 [-순간성]의 상적 자질을 가져 행위 유형에 속한다. 한편 수량 표현 '한 번'이 포함된 (73ㄴ)은 (66)의 [상태성] 및 [순간성] 자질 값 판단 기준에 근거하였을 때 (73ㄱ)와 동일한 값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런데 [종결성] 자질 값 판단을 위해 '-다 말-'을 결합한 '철수는 공원을 한 번 뛰다 말았다'는 (73ㄴ)을 함의하지 않으므로 [+종결성] 값을 가짐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따라 (73ㄴ)은 완성 유형에 속하게 된다.

(72)와 (73)을 통해 확인한 내용을 표 4-1의 상황 유형에 대입하여 요약하면, '번'이 포함된 수량 표현은 [+종결성]의 상적 자질 값을 부여하는 특성이 있어 달성·완성 유형의 사태는 '한 번'이 삽입되어도 해당 상황 유형이 그대로 유지되고, 행위 유형의 사태는 '한 번'이 삽입될 때 완성 유형으로 바뀐다. 앞서 3.2.1항의 표 3-3에서 '번'이 가장 범용적인 사태 단위사임을 계량적으로 확인하였으므로, [+종결성] 값을 부여하는 '번'의 특성이 보편적인 사태 단위사의 상적 특징임을 기대할 수 있다.

그런데 '번' 이외의 사태 단위사가 쓰이면서 [+종결성] 값을 부여하는 것 외의 변화가 일어나는 경우가 있다. '번'이 쓰일 때에는 [-상태성, +종결성, -순간성] 값을 가지는 완성 상황 유형에 [+순간성]을 부여하여 달성 유형으로 바꾸는 단위사로는 '걸음, 발, 발자국, 발짝'이 있다. 반대로, '번'이 쓰일 때에는 [-상태성, +종결성, +순간성] 값을 가지는 달성 상황 유형에 [-순간성]을 부여하여 완성 유형으로 바꾸는 단위사로는 '순'이 있다.

4.2.1. [+순간성] 부여

다음 (74)는 사태 단위사 '번'이 포함된 수량 표현이 쓰인 문장이다.

(74) ㄱ. 시민들께 한 번 더 다가가겠습니다.
ㄴ. 전진을 위해 한 번 후퇴한다.
ㄷ. 숨겨진 진실에 한 번 다가간다.
ㄹ. 라이온즈가 한 번 도망갔다.

(74) 각 문장의 상황 유형을 판단하기 위해 앞선 (66)의 상적 자질 판단 기준에 근거할 때, 모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나요'에 적절한 답변으로 쓰일 수 있으므로 [−상태성] 값을 가지고, 모두 보조 용언 '−다 말−'과 결합하였을 때 해당 사태가 미처 다 일어나지 못했음을 함의하므로 [+종결성] 값을 가지며, 모두 시간 부사구 'T 동안'과 공기할 수 있으므로 [−순간성] 값을 가진다. 따라서 (74)의 각 문장은 모두 완성의 상황 유형에 해당한다.

그런데 사태 단위사 '걸음, 발, 발자국, 발짝'이 '번' 대신 사용될 경우, 완성 유형이던 사태는 달성 유형으로 바뀐다. 다음 (75)는 (66)의 밑줄 친 '번'을 각각 '걸음, 발, 발자국, 발짝'으로 대체한 문장이다.

(75) ㄱ. 시민들께 한 걸음 더 다가가겠습니다.
ㄴ. 전진을 위해 한 발 후퇴한다.
ㄷ. 숨겨진 진실에 한 발자국 다가간다.
ㄹ. 라이온즈가 한 발짝 도망갔다.

(74)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75)의 각 문장을 (66)의 기준에 대입하면, [−상태성, +종결성]의 값을 가짐은 동일하나 시간 부사구 'T 동안'과 공기할 수 없어 [+순간성]의 값을 가지는 것으로 판별된다. 따라서 (75)의 네 문장은 모두 달성의 상황 유형에 해당한다.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원인은 '걸음, 발, 발자국, 발짝'이 단위화하는 사태의 시폭이

매우 짧아 [+순간성]의 값이 부여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4.2.2. [−순간성] 부여

(76) ㄱ. 화살 한 번을 쏘았다.
ㄴ. 화살 한 순을 쏘았다.

위 (76ㄱ)은 사태 단위사 '번'이 포함된 수량 표현이 쓰인 문장이다. 이 문장에서 표현하는 사태의 상황 유형을 판단하기 위해 (66)의 기준에 대입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나요'에 대해 적절한 답변이 되므로 [−상태성] 값을 가지고, 보조 용언 '−다 말−'이 결합하였을 때 화살을 쏘지 못했음을 함의하므로 [+종결성] 값을 가지며, 부사구 'T 동안'과 공기할 수 없으므로 [+순간성]의 값을 가진다.[18] 따라서 (76ㄱ)의 상황 유형은 달성이 된다.

그런데 사태 단위사 '번'이 '순'으로 대체된 (76ㄴ)의 상황 유형은 달성이 아닌 완성이다. (76ㄴ)을 (66)의 기준 아래에 두었을 때, [−상태성, +종결성]의 값을 가지는 것은 (76ㄱ)과 동일하다. 그런다 (76ㄴ)은 시간 부사구 '5분 동안' 등과 공기할 수 있으므로 [−순간성]의 값을 가지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76ㄴ)은 사태 단위사 '순'을 사용함에 따라 완성의 상황 유형에 속하게 된다.

18) 다만, Comrie(1976: 42)에서는 [순간성] 자질에 대해 매우 엄격한 입장을 취하므로 화살이 손에서 떠나 과녁에 꽂히는 매우 짧은 시폭마저 [+순간성]의 값을 가질 만큼 순간적인 사태로는 인정하지 않는다. Comrie(1976)과 같은 입장에서 [순간성] 자질 값을 판단한다면, (76)의 두 문장은 모두 [−순간성]의 값을 가져 완성의 상황 유형에 속한다고 할 수 있겠다.

5. 결론

본 연구에서는 한국어 사태 단위사를 정의하고, 대표적인 사태 단위사 22개를 대상으로 그 용례를 통해 공기하는 동사의 의미적 특징을 분석하였으며, 사태 단위사의 사용이 동사구의 상황 유형을 바꿀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2장에서는 그 동안 한국어에서 개별적인 부류로 자주 다루어지지 않았던 사태 단위사의 정의적 조건을 설정하였다. 먼저 단위사 개념을 일컫는 명칭을 재정립하고, 단위사를 물질 단위사와 사태 단위사로 분류하는 기준을 제시하였다.

3장과 4장에서는 사태 단위사와 동사의 공기 관계를 의미의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3장에서는 개별 사태 단위사의 용례를 통해 공기하는 동사의 분포를 구하고, 말뭉치 전체의 동사 분포와 각 단위사의 동사 분포를 비교하여 상대 엔트로피 값을 산출하였다. 그 결과 말뭉치와 가장 유사한 동사 분포를 가진 단위사는 '번'으로, 가장 이질적인 동사 분포를 가진 단위사는 '바늘'로 나타났다. 그 후 각 단위사와 공기하는 동사들이 공통적으로 가지는 의미적 특징을 살펴보았다.

4장에서는 사태 단위사의 사용이 동사 및 동사구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상황 유형에 주목하였다. 분석한 결과, 사태 단위사 '걸음, 발, 발자국, 발짝'이 '번'을 대체하였을 경우 본래 완성의 상황 유형이던 동사구의 시간 도식에 [+순간성] 값을 부여하여 달성의 상황 유형으로 바꾸게 되었다. 한편, 사태 단위사 '순'이 '번'을 대체할 경우 본래 달성의 상황 유형이던 동사구의 시간 도식에 [−순간성] 값을 부여하여 완성의 상황 유형으로 바꾸었다. 이를 통해 각 사태 단위사의 사용에는 사태의 시간 도식에 힘을 가하는 표현적 기능이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그간 정합적인 판단 기준이 부재하고 분석 방식이 정립되지 않아 하나의 연구 대상으로서 주목받기 어려웠던 한국어의 사태 단

위사에 집중하여 그 의미적 특징을 살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한편 본 연구에서 분석의 대상으로 삼지 않았으나 사태 단위사로 활발히 사용되는 어휘 항목들이 존재한다. 그리고 과거에 사태 단위사로 사용되다가 현재는 그 사용이 준 항목이 있을 것이고, 현재는 단위사로 쓰이지 않으나 앞으로 사태 단위사의 용법을 획득할 항목도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 미처 분석하지 못한 항목을 앞으로의 연구에서 다루어 흥미로운 양상을 발견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또한, 수 관형사 '한'과 사태 단위사 '끼, 바탕, 방, 번, 수, 차례'의 구성이 특수한 의미를 가지는 경우가 발견되었다. 이 현상을 유현경(2008: 69)을 포함한 다수의 연구가 포착하였으나,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와 그러한 의미를 가지게 되는 요인이 무엇인지 밝히는 데까지는 아직 다다르지 못했다. 후속 연구에서는 '한'과 이들 단위사가 만날 때 특수한 의미가 발생하는 원인을 찾아볼 수 있겠다.

참 고 문 헌

1. 사전류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https://stdict.korean.go.kr/>, 접속 일자: 2022년 10월 2일.

세종대왕기념사업회, 세종한글고전, <http://db.sejongkorea.org/>, 접속 일자: 2022년 11월 21일.

2. 문헌류

강범모(1999ㄱ), 빈도와 언어기술, 《언어정보의 탐구》 1, 연세대학교 언어정보개발원, 108-132.

_____(1999ㄴ), 어휘 의미 정보의 구조와 표상, 《한국어 의미학》 5, 한국어의미학회, 83-118.

_____(2008), 두 가지 복수형의 의미 차이에 대하여, 《언어와 정보》 12:2, 한국언어정보학회, 115-137.

강병규(2011), 중국어 명사구 어순에 대한 언어 유형론적인 고찰, 《중국문학》 69, 한국중국어문학회, 175-207.

강창석(2009), 국어의 수량 표현 문법1 -개념과 용어의 문제를 중심으로-, 《인문학지》 39, 충북대학교 인문학연구소, 25-45.

곽추문(1996), 한국어 분류사 연구,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구본관·박재연·이선웅·이진호·황선엽(2015), 《한국어 문법 총론 I》, 집문당.

김선효(2005), 국어의 분류사와 문법화, 《한국어학》 27, 한국어학회, 107-123.

김양진·단명결(2013), 한·중 한자어 분류사 '건'(件)에 대한 통시적 연구, 《국어사연구》 17, 국어사학회, 337-371.

김영민(2008), 현대중국어 양사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_____(2018), 현대중국어 명사의 동태성 연구 - 전쟁류, 재난류, 자연현상류 명사와 동량사의 공기 양상 고찰을 중심으로 -, 《인문

과학연구》 37, 성신여자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59-78.
김영희(1976), 한국어 수량화 구문의 분석, 《언어》 1:2, 한국언어학회, 89-112.
_____(1981), 부류 셈숱말로서의 셈 가름말, 《배달말》 6, 배달말학회, 1-28.
김윤신(2006), 한국어 동사의 사건구조와 어휘상, 《한국어학》 30, 한국어학회, 31-61.
김지홍(1994), 수량사를 가진 명사구의 논항구조, 《배달말》 19, 배달말학회, 1-48.
김천학(2006), 국어의 동작상과 동작류, 《국어교육》 120, 한국어교육학회, 357-378.
_____(2014), 한국어 동사의 종결성(telicity)에 대한 연구, 《언어와 정보 사회》 21, 서강대학교 언어정보연구소, 23-51.
김혜지(2020), 단위사 결합형 명사에 대한 고찰, 《국어학》 94, 국어학회, 177-203.
남길임(2014), 말뭉치언어학의 관점에서 바라본 명사의 정도성 - 관형성과 피수식성을 중심으로 -, 《언어과학연구》 70, 언어과학회, 151-172.
남승호(2003), 한국어 이동 동사의 의미구조와 논항교체, 《어학연구》 39:1, 서울대학교 언어교육원, 111-145.
박덕유(1998), 《국어의 동사상 연구》, 한국문화사.
박성훈(1985), 단위어 연구, 《한문학논집》 3, 근역한문학회, 213-235.
_____(1990), 단위어의 쓰임에 대하여, 《국제어문》 11, 국제어문학회, 3-22.
박소영(2011), 한국어 어휘상에 대한 통사론적 접근, 《형태론》 13:2, 형태론, 335-361.
박은정·조성준(2014), KoNLPy: 쉽고 간결한 한국어 정보처리 파이썬 패키지, 《제26회 한글 및 한국어 정보처리 학술대회》, 한국정보과학회 언어공학연구회, 133-136.

박진호(2003), 한국어의 동사와 문법요소의 결합 양상,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_____(2011ㄱ), 시제, 상, 양태, 《국어학》 60, 국어학회, 289-322.
_____(2011ㄴ), 소유 분류사와 한국어의 속격 표지, 《제4회 연구발표회 발표자료집》, 언어유형론연구회, 25-29.
사타 자코모(2019), 한국어 명사의 단위 명사적 쓰임에 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석주연(2009), 국어 분류사의 수량화 기능에 대한 일고찰-'뭉치류' 분류사의 기능과 발달을 중심으로-, 《우리말글》 47, 우리말글학회, 25-46.
성광수(1975), 소위 불완전명사에 대한 몇가지 검토, 《어문학》 33, 한국어문학회, 189-203.
성기은·김현철(2014), 현대중국어 전용동량사 '番'의 주관성 분석, 《중국어문학논집》 86, 중국어문학연구회, 181-203.
시정곤(2000), 국어 수량사구의 통사구조, 《언어》 25:1, 한국언어학회, 73-101.
우형식(2001), 《한국어 분류사의 범주화 기능 연구》, 박이정.
유동준(1983), 국어분류사와 수량화, 《국어국문학》 89, 국어국문학회, 53-72.
유현경(2008), 관형사 '한'에 대한 연구, 《국어학》 53, 국어학회, 65-86.
이남순(1982), 단수와 복수, 《국어학》 11, 국어학회, 117-141.
_____(1995), 수량사구성의 몇 문제, 《애산학보》 16, 애산학회, 43-67.
_____(1998), 《시제·상·서법》, 월인.
이선웅(2004), 국어 명사의 논항 구조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이의종(2021), 레지스터 분석 방법론에 기반한 한국어 수량 표현 어순 연구, 《언어》 46:3, 한국언어학회, 829-857.
이익섭(1973), 국어 수량사구의 통사 기능에 대하여, 《어학연구》 9:1, 서울대학교 언어교육원, 46-63.

이지은(2018), 어휘확산 이론을 통해 본 양사 '개(個)'의 사용 변화 — 관화(官話)의 동물명사를 중심으로, 《중국학보》 85, 한국중국학회, 3-26.
이철수·박덕유(1998), 《동사 상의 이해》, 한신문화사. [Comrie, B.(1976), *Aspect*, Cambridge University Press.]
이호승(1997), 현대국어의 상황유형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임동훈(1991), 현대국어 형식명사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임홍빈(1978), 복수성과 복수화, 《한국학논총》 1, 국민대학교 한국학연구소, 179-218.
_____(1979), 용언의 어근 분리 현상에 대하여, 《언어》 4:2, 한국언어학회, 55-76.
_____(1991/1998ㄱ), 국어 분류사의 성격에 대하여, 《국어 문법의 심층3(어휘 범주의 통사와 의미)》, 태학사, 236-261.
_____(1991/1998ㄴ), 국어 분류사의 변별 기준에 대하여, 《국어 문법의 심층3(어휘 범주의 통사와 의미)》, 태학사, 263-306.
_____(2000), 복수 표지 '들'과 사건성, 《애산학보》 24, 애산학회, 3-50.
임홍빈·이홍식·김선효·문숙영·박재연·박진호·송길룡·이은섭·최형강·신서인·임근석(2002), 《국어 문법 현상의 계량적 연구》,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전영철(2013), 《한국어 명사구의 의미론: 한정성/특정성, 총칭성, 복수성》, 서울대학교 출판문화원.
정문수(1982), 한국어 풀이씨의 상적 속성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정해권(2021), 한국어 문법상과 어휘상의 인지언어학적 접근, 《담화와 인지》 28:3, 담화인지언어학회, 81-108.
조민정(2001), 국어의 상에 대한 연구,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진려봉(2012), 유형론적 관점에서 본 한국어 분류사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채옥자(2012), 한국어의 동작이나 사건의 횟수를 세는 동작단위사에

대하여, 《국어학》 64, 국어학회, 301-325.
채 완(1982), 국어수량사구의 통시적 고찰, 《진단학보》 53·54, 진단학회, 155-170.
_____(1983), 국어 수사 및 수량사구의 유형적 고찰, 《어학연구》 19:1, 서울대학교 언어교육원, 19-34.
_____(1990), 국어 분류사의 기능과 의미, 《진단학보》 70, 진단학회, 167-180.
최기용(2001), 한국어 수량사 구성의 구조와 의미: 비속격형을 중심으로, 《어학연구》 37:3, 서울대학교 언어교육원, 445-482.
최정도(2017), 한국어 수량 표현의 계량적 연구,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최현배(1937/1975), 《우리말본》(5판), 정음사.
홍사만(2008), 한·일어 분류사의 대조 연구, 《언어과학연구》 44, 언어과학회, 1-27.
황순희·권혁철·윤애선(2010), 한국어 수 분류사 어휘의미망 KorLexClas 1.5, 《소프트웨어 및 응용》 37:1, 한국정보과학회, 60-73.
Aikhenvald, A. Y.(2000), *Classifiers: A Typology of Noun Categorization Devices*, Oxford University Press.
Allan, K.(1977), Classifiers, *Language* 53(2), Linguistic Society of America, 285-311.
Benton, R. A.(1968), Numeral and Attribute Classifiers in Trukese, *Oceanic Linguistics* 7(2), University of Hawai'i Press, 104-146.
Bordag, S.(2008), A Comparison of Co-occurrence and Similarity Measures as Simulations of Context, *Computational Linguistics and Intelligent Text Processing*, Springer Berlin Heidelberg, 52-63.
Comrie, B.(1976), *Aspect*, Cambridge University Press.
Croft, W.(2012), *Verbs*, Oxford University Press.

Diller, A.(2008), Resources for Thai Language Research, in Diller, Anthony V.N. & Edmondson, Jerold A. & Luo, Yongxian(eds.), *The Tai-Kadai Languages*, Routledge, 31-82.

Fisher, R.(1925), Theory of Statistical Estimation, *Mathematical Proceedings of the Cambridge Philosophical Society* 22(5), 700-725.

Huang, C. R. & Ahrens, K.(2003), Individuals, Kinds and Events: Classifier Coercion of Nouns, *Language Sciences* 25(4), 353-373.

Kullback, S. & Leibler, R. A.(1951), On Information and Sufficiency, *The Annals of Mathematical Statistics* 22(1), Institute of Mathematical Statistics, 79-86.

Lyons, J.(1977), *Semantics* (vol. 2), Cambridge University Press.

Rijkhoff, J(2017), *The Noun Phrase*, Oxford University Press.

Shannon, C. E.(1948), A Mathematical Theory of Communication, *The Bell System Technical Journal* 27(3), Nokia Bell Labs, 379-423.

Smith, C. S.(1991), *The Parameter of Aspect* (1st ed.), Kluwer Academic Publishers.

Van Valin, R. D. & LaPolla, R. J.(1997), *Syntax*, Cambridge University Press.

Vendler, Z.(1957), Verbs and Times, *The Philosophical Review* 66(2), Duke University Press, 143-160.

Vendler, Z.(1967), *Linguistics in Philosophy*, Cornell University Press.

李湘(2011), 从实现机制和及物类型看汉语的"借用动量词", 《中国语文》 343, 313-325.

刘街生(2003), 现代汉语动量词的语义特征分析, 《语言研究》 23(2), 51-55.

沈阳·郭锐(2015), 《现代汉语》, 高等教育出版社.

邵敬敏(1996), 动量词的语义分析及其与动词的选择关系, 《中国语文》251, 100-109.
黄伯荣·廖序东(2011), 《现代汉语：增订本 下册》, 高等教育出版社.

Abstract

A Study on the Co-occurrence of Korean State Unitizers and Verbs

Lee, Minyoung
Department of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stablish a criterion of defining Korean state unitizers and to look at the semantic features of state unitizers and the common semantic features that the co-occurring verbs share.

First of all, Chapter 2 defines the notions of unitizer and state unitizer, which have been confused in a number of studies until now. Prior studies have adopted either semantic or distributional criterion in defining state unitizers, which differs from study to study. This study considers three aspects in defining state unitizers, which are category, distribution, and function.

Chapter 3 measures how versatile each state unitizer is, and for

checking on the common semantic features that the verbs co-occurring with the unitizers share. For the former, the Kullback-Leibler divergence were calculated between the distributions of co-occurring verbs and the verbs from the entire corpus. In result, 'beon(번)' was found to be the unitizer that has the most similar verb distribution to the entire corpus, and 'baneul (바늘)' having the least. For the latter, verbs co-occurring with each unitizer had their frequencies calculated and were analysed semantically.

Chapter 4 reveals that state unitizers have the ability to manipulate the situation type of the verb clause under certain conditions. Firstly, it is checked that numeral expressions containing the state unitizer 'beon(번)' can give [+telic] to the verb clause. Furthermore, it is verified that the use of state unitizers 'geoleum(걸음), bal(발), baljaguk(발자국), baljjag(발짝)' can give [+punctual] and thus change the situation type from Achievement to Accomplishment. Moreover, it is verified that the use of state unitizer 'sun(순)' can give [-punctual] and thus change the situation type from Accomplishment to Achievement.

This study has its meaning, firstly in that it prepares the foundation for further discussion on Korean state unitizers by adopting the criterion of definition, and secondly in that it confirmed the semantic function of using certain state unitizers.

keywords : state unitizer, verb, co-occurrence, situation type
Student Number : 2021-21056